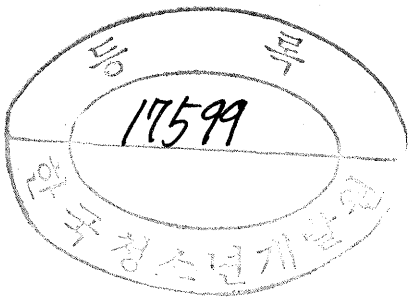
인 문 사 회 연 구 회
협동연구총서 2004-08-02

2004 연구보고서 270-08-02

성차별 개선 프로그램

2004. 12

책임연구원 : **박 영 균**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강 순 원** (한신대학교 교수)
김 영 지 (한국청소년개발원 부연구위원)



한 국 여 성 개 발 원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개발원이 주관하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과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Ⅰ. 성차별 개선 프로그램은? ····· **1**
1. 프로그램의 개요 ····· 3
2. 프로그램의 구성 ····· 5

Ⅱ. 나의 성차별 감수성 ····· **9**
1. 차별적 성 역할 ····· 11
2. 성 차이 ····· 27
3. 20년 뒤의 우리반 반창회 ····· 35

Ⅲ. 성차별 교육과 문화 ····· **39**
4. 사건현장(차별)을 찾아서 ····· 41
5. 교과서 속의 성차별 ····· 58
6. 쉿! 우리 말 속에 성차별이 숨어 있어요. ····· 74
7. 양성이 평등한 우리학교 만들기 ····· 83
8. 새로 쓰는 동화, 순데렐라? ····· 87

Ⅳ.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 **93**
9. 레디 고! 새로 만드는 CF! ····· 95

참고문헌 ····· 99

Ⅰ. 성차별 개선 프로그램은?

1. 프로그램의 개요
2. 프로그램의 구성

1. 프로그램의 개요

사회에서 차별은 개인적, 집단적 혹은 직접적, 간접적 접촉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중층성을 띠고 있게 되므로 어떤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을 배제시켜 결국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은 부정적 결과를 낳게 하고 또 차별 대상에게는 치명적인 인권침해의 상처를 안게 한다. 이러한 차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일정한 차별-출생, 가정, 교육, 문화, 복지, 고용-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되고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차별의 사이클을 끊고 자유롭기가 상당히 어렵다.

성차별이란 남녀의 생물학적 성을 기초로 하여 특정 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과된 편견이나 차별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률상의 성차별에 대한 정의로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남녀차별이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호주제나 고용이나 승진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성차별 관행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사회에서의 성차별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행화된 성차별을 벗어나 모두가 평등한 민주사회를 이루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사회발전의 중요한 방향으로 믿어지고 있다. 성차별이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성차별이 아닌 양성이 평등한 교육을 통해 평등문화를 이루는 것은 사회적 진보의 핵심이자 곧 비인간화에서 인간화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양성평등교육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벌여왔고 그 성과는 여성지

위의 신장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성평등 성차별 개선 교육은 이러한 양성평등을 이루는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양성평등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미디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서의 성차별 개선교육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성차별 개선 프로그램 개발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다. 본 과제는 그러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계획된 것이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성차별 개선교육은 조기 성차별 개선 교육을 통해 사회에서의 성차별을 개선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실증적 결과에 의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단체 뿐만 아니라 학교 같은 공공기관이나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 프로그램의 구성

'청소년을 위한 성차별 개선 프로그램'은 청소년에게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이를 올바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활동으로서 청소년이 있는 모든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성차별은 우리사회가 중층적인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구조로 인해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이미 관행화된 형태로 존재하는 성을 매개로 한 차별적인 인권침해의 사안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개인의 성차별적 관행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차별 개선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나의 성차별 감수성'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박혀있는 성역할 규정, 성차에 대한 나의 인식 그리고 20년 뒤의 반창회를 상상하며 성사회화의 내재한 성적 편견을 보게 한다.

두 번째 '성차별 교육과 문화'의 단계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성차별 경험에 관한 기록장을 작성하게 하여 우리 스스로가 성차별의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몸담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에 얼마나 많은 성차별적 내용이 있는지를 찾도록 하게 하여 학교의 성차별관행을 고발하도록 한다. 동시에 성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학교를 양성이 평등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한다. 일반적으로 신데렐라는 여성이 남성을 잘 만나 팔자가 펴는 권선징악적 요소로 대표된다. 이것을 다시 작성하여 인권적 시각에서 양성이 평등한 이야기로 재편집한다. 세 번째 '양성평등사회를 위하여'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TV 광고 콘티를 분석하여 그 안에 내재한 성차별을 분석하게 하고 성차별적 요소가 지배하는 광고 문안을 다시 바꿔 양성평등한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힘으로 양성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행단계이다.

이러한 성차별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구조를 분석하고 고발해냄으로써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양성평등사회를 구체화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자신들의 노력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실행해 보기를 기대한다.

성 차별 개선 프로그램 구성

활동영역	단위활동	활 동 내 용
Ⅰ. 나의 성차별 감수성	1. 차별적 성 역할	우리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에 따른 역할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성 역할에 대한 규정이 곧 성차별임을 안다.
	2. 성 차이	성 차이에 대한 분석표를 보면서 성 역할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남성과 여성의 특성 차이에서 오는 성 역할의 규정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3. 20년 뒤의 우리반 반창회	20년 뒤에 모이는 반창회 모임을 상상하며 가상으로 반창회를 재현해 본다. 성적 선입견과 성적인 것에서 오는 기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Ⅱ. 성차별 교육과 문화	4. 사건현장 (차별)을 찾아서	이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대들이 작동하고 있는 사례, 즉 남성 또는 여성,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성적 이유만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대우를 받는 사례들을 찾아본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의 사례들을 알아본다.
	5. 교과서 속의 성차별	성차별의 사례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의 현장인 교과 과정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안다.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을 분석해 본다.
	6. 쉿! 우리 말속에 성차별이 숨어 있어요.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들을 나타내는 언어들을 찾아보고, 그 언어가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을 규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본다.

	7. 양성이 평등한 우리학교 만들기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어느 한쪽의 성의 우대받거나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성이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들을 학생들 스스로가 찾아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8. 새로 쓰는 동화, 순데렐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신데렐라' 의 이야기를 성차별적인 측면에서 제조명해 본다.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미리 정해진 성 역할이나 외모에 따른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분석해 본다.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성차별과 인권차원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 보며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배운다.
Ⅲ.양성평등사회를 위하여	9. 레디고! 새로 만드는 CF	광고의 콘티 분석을 통해, TV/라디오의 성차별적 요소를 알 수 있다. 광고 속의 남·녀의 역할을 바꾸거나 대체해 봄으로써 성에 대한 선입견이 광고 속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기존의 콘티를 재구성해 봄으로써, 성차별적 요소를 없앤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Ⅱ. 나의 성차별 감수성

1. 차별적 성 역할
2. 성 차이
3. 20년 뒤의 우리반 반창회

1. 차별적 성 역할

개 요

□ 활동목표

- 우리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에 따른 역할 규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 성 역할에 대한 규정이 곧 성차별임을 안다.

□ 활동요약

- 자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남자의 일', '여자의 일', '남여 공동의 일'을 구분해 보면서 한다.
- 참가자 집단이 속한 모임에서 성 역할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 한다.
- 성 역할에 대한 왜곡된 이해는 성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알게 한다.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 모둠 진행 스텝 5~6명
- 참가인원 : 30~40명 (5~6명씩 5~6모둠)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1시간 내외
- 준비사항 : 활동이 실시되는 공간 벽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상징하는 사진들을 붙여 놓는다.(주방에서의 엄마, 차 심부름하는 여직원, 힘센 노동을 하는 남성 등등)
- 준 비 물 : 성 역할 구분표(인원수대로), 필기도구

□ 유의사항

- 토론진행 방법에 이해 설명
- 타인의 의견을 존중

활동내용

활동 1 : 남자가 해야지..아니지 여자가 해야지!!

▶ 주요내용 : 공공시설 모니터활동 프로그램의 내용과 일정에 관한 간단한 설명 및 모둠별 소개시간

▶ 소요시간 : 1시간 내외

▶ 준 비 물 : 워크시트, 필기도구

▶ 진행과정

- 5~6명 내외의 모둠을 구성합니다.
- 아래의 워크시트를 나누어 줍니다. <자료 1>

[표시 구분] 남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 남
여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 여
공동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 공

번호	일	구분
1	병역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가는 일	
2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갖는 일	
3	집안 살림을 꾸려 가는 일	
4	요리를 하는 일	
5	나라의 대통령이나 중앙 부처 장관을 맡는 일	
6	아기를 양육하는 일	
7	가계부를 정리하는 일	
8	교실 청소를 하고 화단을 가꾸는 일	
9	고장난 전기용품이나 부서진 가구를 고치는 이	
10	집안의 세대주가 되는 일	

▪ 각자의 표시구성이 끝나면 모든 학생들이 각 항목별로 어떻게 성 역할을 구분했는지 아래 표에 모둠의 의견을 종합하여 모둠의 의견을 종합하여 모둠합계 통계수치를 적어본다. <자료2>

번호	일	합계 숫자			
		남	여	공	합계
1	병역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가는 일				
2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갖는 일				
3	집안 살림을 꾸려 가는 일				
4	요리를 하는 일				
5	나라의 대통령이나 중앙 부처 장관을 맡는 일				
6	아기를 양육하는 일				
7	가계부를 정리하는 일				
8	교실 청소를 하고 화단을 가꾸는 일				
9	고장난 전기용품이나 부서진 가구를 고치는 일				
10	집안의 세대주가 되는 일				

▪ 결과를 함께 보면서 각 항목별로 성 역할이 규정되고 있는 이유와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함께 토론한다.

▪ 선생님의 도움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입장이어야 한다.)

☞ 유의사항

▪ 처음 과정은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옳고 그름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도록 말해 준다.

▪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하여 친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든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도록 진행자는 조정한다.

- 따라서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애매한 부분은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은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여러 번 말하지 않도록 조절해 준다.
- <자료 2>를 2장 복사하여 한 장은 모둠통계용으로, 나머지 한 장은 전체 통계용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도움자료

□ 자료 1, 2. 성 역할 구분 표, 통계표 (본문참고)

□ 자료 3. 성 역할에 대한 도움말 자료

▶ 성차별에 대한 이해

성차별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런 성차별은 공적 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가장 뿌리 깊고 만연된 사회적 불의 중 하나이다. 성차별은 여성을 폄하하거나 여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감정적인 측면, 여성은 감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논리적이라는 식의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인지적 측면, 여성에 대해 구체적인 차별을 행사하는 행동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

이런 성차별은 성차와 성 역할에 대한 오래된 편견과 고정 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여성다움, 남성다움과 같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차(gender)를 본래적인 것처럼 여겨 이에 알맞은 사회적 역할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은 아동과 마찬가지로 미성숙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이 누리고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신념들은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교육되고 강화되어 왔으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배제하고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

▶ 남자에게도 불이익을 주는 성 역할에 대한 규정

성 역할에 대한 규정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에게도 불이익을 준다. 먼저, 여자는 성 역할의 고정화로 말미암아 능력발휘의 기회가 제한되고 남성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런 경제적 종속은 사회적 종속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음으로 남성은 여성을 부양할 부담을 지게 되고, 남성다움을 강요받음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성격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결국 적어도 현대

이후에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의 차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하여 정해질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 성 역할의 구분이 여성이나 남성에게 또는 전체 인간 사회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성차별이 없어져야 한다고 해서 당장 모든 남녀 성 역할의 차이를 없애자고 주장한다면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성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성차별의 근거인 성 차이를 없애야 하는데 이 성차이가 남녀차별적인 교육에 의해 생긴 것이므로 그것의 제거를 위해서는 교육에 있어서 각 성별(性別) 역할 차이를 고정된 것으로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정신적 특질을 확립하는 성장 과정에는 인위적인 교육 외에도 사회에 접하여 스스로 배우는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자라면서 보고 배우는 사회는 그들이 성인으로 생활할 사회와 같을 수 없으므로 한 세대 만에 완전한 성차별의 해소는 그 남녀평등 교육의 성패여부에 관계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 자료 4. 성 역할에 대한 생각들

▶ 남자는 군대에 가는데 여자는 군에 안간다. 이것이 성차별에 해당합니까?

사람마다 다를듯,
솔직히 여자는 사회적지위로도 아직 알게 모르게 성차별 많이있고,
아기도 낳고, 가사노동하고, 보통 여성분들은 좀 약하고,,
물론 예외는 어디든지 있지만요.

그런데 저는 군입대가지고 여자는 안가는데 남자는 왜가냐이런식의 글을보면 그 사람들은 참 생각이 짧은 것 같아요.
자신들의 어머님과 애인이나 여동생이나 누나들을 생각하면 그 소리가 나올런지..——;

▶ 그게 무슨 성차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성차별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당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걸 성차별이라고 한다면..세상엔 성차별이 갈리고 갈렸겠네요,

▶ 성차별을떠나서..

당연히 남자만 군대가는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생각이 짧다고 생각하는데 ...
과거의 여자들이 불편하고 힘든건 다 내세우고 고치면서
왜 군대얘긴 안하는지 ㅎㅎㅎ
군대 갔다온 여자있음 당장결혼할 텐뎅..
전 성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 남성 입장에서 성차별

1 - 병역문제
2002년 대한민국에서 SOFA모르면 간첩이 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잘 알 것이다.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했다.
그러나, 남자는 의무고 여자는 선택이다.
의무와 선택은 하늘과 땅차이 만큼이나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얼마전 서울대 나모군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군대 안가겠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전과자가 되었고, 2년동안 감옥에서 고생을 하여야 한다.
같은 학교 다니는 여학생의 경우는 어떠한가...?
병역에 대한 근심걱정없이 학교 잘 다니고, 취업, 고시, 연애, 결혼 등등 준비하느라, 바쁘게 시간 아끼며 지낼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이들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라는 성별을 가졌다는 이유로 감옥생활을 한다는 것이 평등이란 말인가...!!
게다가 병역문제로 인한 차별
1. 시간적 손실 (요즘은 26개월, 예전엔 더 길었음)
2. 육체적 고통.정신적 고통
3.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균등 (군대있는 동안은 사회의 각종 기회가 없음)
4. 양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등등
5. 제대후 8년차까지 예비군 훈련. (훈련가면 밥값도 안나옴)

6. 평균2년 이상 늦은 졸업, 취업과 결혼.
7. 정년때까지 사회생활의 기회박탈 (평균 3년정도 늦은 입사로 인해)
8. 병역미필자의 회사원서접수 기회박탈
9. 각종 군대사고와 질병유발의 원인으로 인한 휴유증 발생
게다가 평균7.5년 여자에 비해 일찍 사망하는 현실에서 위의 차별은
더욱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이글을 쓰게 된 동기는 여성부가 남녀의 완전한 남녀평등을
주장을 하기에 쓰는 글이며 더나아가 말도 안되는 각종 여성특혜제도로 남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국민(남자)은 병역의 의무를 져야만되고 어떤국민(여자)은 선택할 수 있는 나라,
SOFA처럼 불평등한 제도가 자체적으로 자국민에게 실시되고 있는나라, 정말로 평등한 나라일까...!!!!!!!

2 - 교육차별
분명 21세기는 과거보다 훨씬 자유를 보장받으면서도 평등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는 교육에 있어서 평등하다.
그리고 학력고사, 수능 등의 시험을 통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런데, 갑돌이의 경우 이화여대,덕성여대, 숙명여대 등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대학에서 입학자격을 남자라는 이유로만 제한하고 있다.
그와 비교하여 갑순이는 우리나라 어느대학(육사,해사,공사 모두포함)에도 갈 수 있다. (단, 군대의 특성상 인원제한을 하고 있음)
이런 불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총 입학가능 선발인원으로 따져도 불리한 조건에 있다.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취지에도 맞지 않고 여성부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남녀평등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단한번도 이런 불평등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특히 이대는 페미니스트의 집합체라는 애기도 자주 듣는 학교다.
군필가산점제 폐지를 주도 했던 학교이다...
만약 서울대, 연대, 고대를 이대, 숙대, 덕대처럼 남자만 입학자격을 준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이제는 남자들도 알아야 한다.
여성부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잘못된 일인가를.....
성차별을 없애자면서, 성차별을 만드는 부서라는걸...!!!!!

3 - 채용제도
여성할당제, 양성고용평등제, 국립대 여교수20%할당제등등
과거에 있어서도 안될 제도가 21세기에 만들어졌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나온다.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경쟁사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남녀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얼마전 100분토론에서 이 제도의 찬성을 주장하는 여자2명이 얘기하는걸 들어보았는데,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실시하자고 한다.
그 바탕에는 여성들이 그동안 많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난 남자라서 우대받은 적이 없다.
근본적으로 여자는 사회적 약자라고 못을 박고 있는 사람하고 무슨 평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 2003년 여자라고 시험공부를 하는데 방해한 사례가 있으며, 시험볼 자격을 안주는곳이 있는가 묻고 싶다.
오히려 병역문제가 선택인 여자들이 훨씬 좋은 조건에 있는게 사실이다.
게다가 군필가산점제까지 없는 남자들을 상대로 더 좋은 점수를 얻는다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는 오히려 여자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펼치고 있다.
9급시험과 초등교사임용에서는 여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지만 시험에서
다른 성(性)이 자기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도 합격한다면 불합격된 사람의 인생은 누가 책임을 져줄수 있는가..!!
3D업종과 군대에서의 여성할당제를 실시하자는 것 또한 본적이 없다.
근무여건이 좋고 보수많은 곳만을 골라 실시하겠다는 저의가 아니던가..!!
여성부는 여자들에게 고기낚는 법은 가르칠 생각은 안하고 물고기만을 주고 있지는 않는가 묻고싶다....

4 - 복지제도
대한민국은 OECD가입국 중에서 복지부분은 하위권이다.
나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부는 참으로 여성복지에 엄청난 정성을 쏟아붓고있다.
출산, 보건의료,사회복지,여성노인복지,생리휴가제 등등 정성이 가득하다.
그러나, 남자들에게는 강자라고 규정해 놓아서 그런지 단 1건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더욱더 놀라운 것은 61.8%로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이 많다는 이유로
"고령사회 대비 종합적 여성노인정책방안" 을 강구중인 것 같은데
7.5년이나 수명이 짧은 남성노인들 조차 남자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인륜을 저버린 발상 자체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노인도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죽을 사람은 빨리 죽어버리라는 뜻인가..?
아니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강자여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리휴가를 만든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우리나라 여성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모양이다.
양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복지에만 신경쓰고 애써 남성노인까지
외면하는 여성부를 누가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 여성 입장에서 성차별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서 살아왔다. 남성위주의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여성에 대한 차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여성문제에 대해 평소 공감하고 있었다.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 여성문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 여성 성차별이란?

여성 성차별이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으로써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함에 있어서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제한을 말한다.

■ 여성 성차별의 원인은 무엇인가?

① 전통적 가부장제도

○ 일부다처제: 이 제도는 그 시대에 당연하게 여겨졌다.

○ 칠거지악 : 여자가 지켜야 할 일곱 가지 규율로 엄 하게 지켜졌다.

② 남성들의 고정관념과 여성들의 잘못된 사고

○ 남성 : 남성들은 " 여자가...," " 여자들은..." 등등 잘못된 고정관념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 여성 : 여성들은 " 이런 건 남자가 해야 돼", " 남자가 앞장서야 일이 잘 되지." 등등 여성 성차별을 외치고 있는 여성부터가 남자에게 먼저 기대려 하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부터가 잘못 되었다.

■ 남녀차별의 금지기준

○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 공공기관 및 사업주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남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 공공기관 및 사업주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 조건, 방법 등에서 성별을 이유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여성 성차별의 실태와 예시

▷ 실 태

① 가정

- 자녀에 대한 기대: 부모는 남아에게는 큰 사람이 되기를, 여아에게는 얌전하고 조신한 사람이 되길 바람.
-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 : 남아는 아들이란 이유로 집안의 대사를 다루고 여아는 집안의 나머지 일들을 어머니를 도와 배우며 자란다.
- 남아 선호사상 : 부모들은 자녀 계획시 여아보다는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 결과 남아 수와 여아의 수비율이 맞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② 학교

- 교과과목의 구분 : 이런 현상은 많이 없어졌지만 여학생은 가사, 남학생은 기술 중심으로 배운다. 이 현상은 고학년이 될수록 더욱 심해진다. 이제는 고정관념이 되었다.
- 교사와 학생의 관계 : 교사는 학습능률이 남학생보다 뒤지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진로와 연관시켜 차별을 당한다.

③ 사회

- 정치의 참여 : 현재 국회에 진출한 여성 국회의원은 ¼정도의 수준도 되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여성 성차별에 법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장관, 차관 등 고위 관직에는 여성을 보기 힘들다.
- 취업의 성차별 : 취업시 남성은 능력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만 여성에게는 능력보다는 외모를 강요한다. 예를 들면 키 160㎝이상, 몸무게 45㎏이하 등을 취업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이다.
- 직장 내 성차별 : 직장 내 성차별은 IMF로 인해 성차별은 더욱 심해졌다. 여성 우선 정리 해고와 부당 해고가 여전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출산을 이유로 인한 퇴직강요, 해고, 무급 휴직연장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 실 례

[여성민우회, 농협고발 - 사내 부부 중 여성만 사직 강요]

한국 여성 민우회(공동대표 정강자, 박원순, 이은영)는 13일 농협이 구조조정을 위한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사내 부부인 여성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사표를 강요하는 성차별적 행위를 했다며 농협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농협이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생활안정자를 선정한다는 명분으로 사내 부부의 남편들에게 사표 제출을 통보한 뒤 실제로는 개별 면담, 전화를 통해 사내 부부의 여성들에게만 퇴직을 강요, 762쌍의 사내 부부 중 752명이 퇴직을 당했고 이 중 91.5%가 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함께만 살면 해로인가 - 황혼이혼]

지난 4일 서울 고등법원은 75세의 한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서 할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인정하면서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더군다나 고령의 정신장애 탓이라며 할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52년 전 혼인 당시 가치 기준과 남녀 관계를 고려해볼 때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52년 간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당하며 아내로서의 대접은커녕 최소한의 인간적인 권리조차 무시당하고 살아온 여성에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굴종의 삶을 계속 이어가라고 '법'이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전 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가부장적 가치관을 잣대로 혼인생활을 계속하라는 판결이 21세기를 바라보는 오늘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가정법률상담소를 찾는 남성보다 많은 여성들은 가부장제, 남성 중심의 이 사회에서 계층, 학벌,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남성보다 억눌린 삶을 살고 있다.

서로 노력하고 대화하며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물론 현명한 일이겠지만 이것은 두 사람이 동등한 인격으로 서로를 대접할 때 가능하다.

일방이 무조건 참고 순종하고 견디어야 하는 상황이 어찌 '해로'란 말인가? 무조건 함께 늙어가면 해로인가? 우리는 '해로'라는 말에서 서로 의지하며 어려운 생활을 함께 겪어내고 이제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아름다운 노부부의 모습을 상기한다.

그러나, 바로 얼마 전 고등법원이 '해로하시라'며 패소 판결을 내린 75세 할머니에게 '해로'란 끝모르는 날까지 무작정 그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여 견디고 참으며 노예같은 삶을 계속하시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75세 할머니 패소 사건 이후 상담소를 찾는 많은 여성들이 "이혼 소송해도 소용 없겠네요?"라며 잔뜩 움츠린 모습을 보였다.

(조선일보 1999. 1. 7)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 내 용

지난 1월 6일 국회 제 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내용이다.

가. 남녀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남녀차별금지 분야를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서비스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과 성희롱의 금지로 규정함.(안 3조 내지 8조)

다. 남녀차별 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조사.시정.구제하고 이를 위한 집행기구로 정부조직법 제 18조 제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 소속 하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를 설치함.

라. 개선위원회의 기능은 ㉠남녀차별 사항 조사와 남녀차별 여부의 결정 ㉡위법.부당한 남녀차별에 대한 시정권고 ㉢남녀차별여부 판정의 결과 법령.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남녀차별에 대한 기준 및 개선 지침 수립 등임.(안 제10조)

마. 전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은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함.(안 제 11조)

바. 남녀차별 사항 중 다른 법령에 의해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이송할 수 있게 함.(안 제26조)

사. 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사항에 대한 처리 방법으로는

①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②관계기관에 대한 법령·제도 등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

③ 처리결과 공표

④고발 등을 규정함.(안 제28조, 제36조, 제37조)

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개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함.

▷ 다른 법률과의 차이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에서 혹은 회사에 입사할 때만 적용되는 법이지만, 이번 법률은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의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다. 고용, 교육, 재화, 시설, 서비스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과 성희롱의

금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남녀공학 학교 건물에 여학생 화장실의 수적인 부족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눈길을 끄는 것은 성희롱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는 것이다. 물론 '음흉한 눈빛'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냐는 논란 끝에 빠지기는 했지만, 전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법률 제 1장 총칙과 제 2장 남녀차별의 금지 참조)

▷ 한계점 및 보완점

한계점은 완전한 준사법권의 획득에 실패한 점이다. 시정권고나 명령 정도로 큰 강제성을 갖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차별에 관한 언급에서 대중매체에 관한 조항이 빠져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또 남녀차별에 대한 신고가 피해를 입은 자(자연인)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민우회와 같은 비영리 사회단체에도 신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 및 관행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이 89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지 10년이지만, 여전히 구인란에 '군필 남'이라고 표시하는 회사들이 아주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이 존재하는 사실마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민우회의 의견

① 거리캠페인
법 제정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우선 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나 여기 캠페인'
법이 생겨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므로 시비걸기(딴지걸기)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자신이 느끼는 여성차별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 기록을 모아 10가지 주요 차별을 선정해서 소송 특위를 꾸려 소송을 제기할 계획으로 있다.
여성차별 사실을 자꾸 드러내어야만 차별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고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2. 성 차이

개 요

□ 활동목표

- 성 차이에 대한 분석표를 보면서 성 역할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회적인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한다.
- 남성과 여성의 특성 차이에서 오는 성역할의 규정도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 활동요약

- 성 차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어 본다.
- 성 차별의 역사를 안다.
- 차이가 차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하도록 한다.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 모둠 진행 스텝 5~6명
- 참가인원 : 30~40명 (5~6명씩 5~6모둠)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1시간 내외
- 준비사항 : 교육활동이 실시되는 공간 벽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상징하는 사진들을 붙여 놓는다. (주방에서의 엄마, 차 심부름하는 여직원, 힘센 노동을 하는 남성 등등)
- 준 비 물 : 성 차이 구분표(인원수대로), 필기도구

□ 유의사항

-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다름'임을 알도록 한다.
-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다른 참여자들은 논리적 모순이 없는지를 발견하도록 하여 재미있는 토론이 되도록 한다.

활동내용

활동 1 :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다를까?

▶ 주요내용 :

▶ 소요시간 : 1시간 내외

▶ 준 비 물 : 워크시트, 필기도구

▶ 진행과정

- 5~6 내외의 모둠을 구성한다.
- '성 차이에 대한 나의 생각' 표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항목별로 체크하게 한다.
- 아래의 워크시트를 나누어 준다. <자료 1 >

	[표시구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아닌 편이다	아니다
① 남성의 수리능력이 더 우수하다.	□	□	□	□	□
② 여성의 언어능력이 더 우수하다.	□	□	□	□	□
③ 남성의 시간·공간 능력이 더 우수하다.	□	□	□	□	□
④ 남성의 공격성이 더 강하다.	□	□	□	□	□
⑤ 남성의 지능이 더 높다.	□	□	□	□	□
⑥ 여성이 더 겁이 많다.	□	□	□	□	□
⑦ 남성의 성취동기가 더 강하다.	□	□	□	□	□
⑧ 여성의 가정 지향성이 더 강하다.	□	□	□	□	□
⑨ 남성의 과제 지향성이 더 강하다.	□	□	□	□	□
⑩ 여성의 대인 지향성이 더 강하다.	□	□	□	□	□

- 각 항목별로 전체 학생들이 어떤 경향성으로 체크를 했는지 분석해 본다.
- 각 항목별로 '예'와 '아니오'의 두 가지 경향성으로 나눠보자.
-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에 체크한 사람의 수가 많으면 '예'로 구분을 하고, '아닌 편이다'와 '아니다'로 체크한 사람의 수가 많으면 '아니오'로 구분한다.

	항목	예	아니오
1	남성의 수리능력이 더 우수하다.		
2	여성의 언어능력이 더 우수하다.		
3	남성의 시간, 공간 능력이 더 우수하다.		
4	남성의 공격성이 더 강하다.		
5	남성의 지능이 더 높다.		
6	여성이 더 겁이 많다.		
7	남성의 성취동기가 더 강하다.		
8	여성의 가정 지향성이 더 강하다.		
9	남성의 과제 지향성이 더 강하다.		
10	여성의 대인 지향성이 더 강하다.		

▪ 각 항목별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혹시 타당한 이유가 없는 편견인지를 토론한다.

☞ 유의사항

▪ 남·녀의 차이는 있으나,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한다.

▪ 유전적 요인도 사회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도록 돕니다.

▪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하여 친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든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않도록 진행자는 조정한다.

▪ 따라서 진행자는 참가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애매한 부분은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같은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여러 번 말하지 않도록 조절해 준다.

도움자료

□ 자료 1. 성 차이 구분표

[표시구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아닌 편이다	아니다
① 남성의 수리능력이 더 우수하다.	□	□	□	□	□
② 여성의 언어능력이 더 우수하다.	□	□	□	□	□
③ 남성의 시간·공간 능력이 더 우수하다.	□	□	□	□	□
④ 남성의 공격성이 더 강하다.	□	□	□	□	□
⑤ 남성의 지능이 더 높다.	□	□	□	□	□
⑥ 여성이 더 겁이 많다.	□	□	□	□	□
⑦ 남성의 성취동기가 더 강하다.	□	□	□	□	□
⑧ 여성의 가정 지향성이 더 강하다.	□	□	□	□	□
⑨ 남성의 과제 지향성이 더 강하다.	□	□	□	□	□
⑩ 여성의 대인 지향성이 더 강하다.	□	□	□	□	□

□ 자료 2. 성 차이 도움말 자료

▶ 설문에 대한 해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위 설문 항목 중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은 ①~⑤뿐이고 ⑥~⑩은 완전히 교육 등 후천적인 것의 결과로 성과 무관하다고 한다. 더구나 입증된 ①~⑤의 차이들도 사회, 문화적 차이에 따라 변한다. 즉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순종적인 서남아시아, 동아시아에서는 성별 지능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성역할에 대한 기존의 관념들의 상당 부분은 바뀔 수 있다. 만약 이것들로 인해 여성이 부당한 차별을 당한다면 교육의 변화를 통해 이들 특질을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성별 평균 결과의 비교이

므로 이를 근거로 개인의 자질을 단정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남성의 지능이 더 높다고 하지만 약 25%의 여성의 지능은 남성의 평균 지능을 상회한다.

육체적 특질의 측면은 정신적 특질보다 명백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신체가 더 크고 힘이 세다. 따라서 육체적 힘을 요하는 직업들에 남성이 더 적합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육체적 능력의 부족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신체적 특질로 인한 여성고용의 장애는 사라지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는 스포츠를 제외하고는 육체적 능력이 문제가 되는 분야는 거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그 성역할의 규정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 성차별의 역사

성차별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발달했는지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살펴본다.

• 원시사회

원시사회를 지탱했던 주요 생산 양식은 수렵과 채집이었다. 그런데 남성이 담당하였던 수렵활동보다는 여성이 담당하였던 채집활동이 보다 안정적인 생산물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경제생활에서 여성의 중요성이 인정되었고 가족제도에도 이것이 반영되어 모계 사회, 집단혼 등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아직 남성에 의한 여성의 독점은 나타나지 않았고 물론 성차별도 없었다. 여성은 또한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자로서 존경받았다.

• 고대 노예제 사회

달에 따라 잉여생산물이 발생, 축적되기 시작했고, 농경과 목축의 생산 수단을 소유한 남성에게 경제력과 정치권력이 편중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발생한 것이 가부장제인데 여기서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된 피부양자로 전락하고 만다. 이 가부장제를 확립하기 위한 조직적·사회적인 여성 차별의 시도(일부 종교는 여성을 타락의 원인으로 지목 죄악시했다)를 찾아볼 수 있다.

• 봉건제 사회

봉건 사회의 피라미드 구조는 가부장제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 시기에 가

부장제는 점점 더 강화된다. 생산력은 발달하고 여성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차별은 심화되었다. 유럽에서 백만 명 이상의 무고한 여자들을 죽인 마녀 사냥은 당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다.

•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의 발생은 자본가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분화시켰고, 이 속에서 여성은 임금 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경제적 능력을 확대할 기회를 맞이했다. 그러나 이는 여성 해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생산 기능을 분리해 내었고 가정의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여성은 불가피하게 가사에 전념하기를 강요받았다. 이런 처지는 노동시장에서도 그 노동 가격의 저평가 요인이 되었고, 취업 기회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 재생산 노동(가사 노동)의 대가는 거의 부인 되었고 임금 절감에 도움이 되는 가부장제는 더욱 강화·미화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는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직업적 차별도 줄어들고 있다. 점차 여성 해방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 자료 3. 남녀간의 성차이로 인한 에피소드..

살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겪게 되죠. 남녀가 원체 다른지라 화성인이라는 둥 금성인이라 둥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남녀간의 차이에 대해 잘 나와 있는 책이 바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데 이 책 읽어 보시면 많은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특징이 다릅니다. 꼭 생식기만 다른 게 아니고 운동신경 및 감각기관 등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 예로 남자는 시각에 민감하고 여자는 청각에 민감하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눈으로 사랑을 느끼고 여자는 귀로 사랑을 느낍니다.(물론 정상적인 사람은 모두 시각에 의지하지만 여자는 남자에 비해 청각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여자들이 연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도 이런 이유와 관계가 깊구요.
그러나 남자는 시각에 의지하는 터라 여자가 무언가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구요.

□ 자료 4. 성 차이에 관한 글

▶ 남성과 여성의 성차이

가장 기초적인 성역할의 구별에서 오는 성차이는 있다. 예컨대,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고 기르는 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도 여성의 의무요 역할이었다. 이것은 여성의 성격이나 태도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여성은 남성보다 생명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보다 친숙한 감정표현이 능하다. 이와 같이 자연적 조건·천부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남여간의 차이는 보통의 일상적 일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즉 여성은 직관력이 빠르고 감정이 온후하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어떤 경우에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이런 것도 아니다. 예컨대, 남편은 아동심리학자, 아내는 건축기사 또는 남편은 전기시설이 완비된 부엌에서 요리하고 꽃을 가꾸는데 취미가 있는 반면 아내는 정원을 가꾸고 집안 구석구석을 고치고 보살피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전형적 남성, 전형적 여성이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점을 가지고 또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면서 살아갈 때 조화가 이루어지는 법이다.

▶ 남녀간의 차이점

남자와 여자는 꼭 같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전혀 다르지도 않다. 남자를 남자답게 하는 것은 안드로겐(androgen) 때문이다. 여자를 여자답게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oestrogen) 때문이다. 그런데, 남자도 여자도 비율상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두 가지 호르몬을 생산해 낸다. 결국 양성적인 존재는 아니면서도 양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느 쪽이 우성(優性)이냐 열성(劣性)이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출처: http://www.parksimon.com/lecture/intro/여성복지/남과 여

3. 20년 뒤의 우리반 반창회

개 요

□ 활동목표

- 20년 뒤에 모이는 반창회 모임을 상상하며 가상으로 반창회를 재현해 본다.
- 성적 선입견과 성적인 것에서 오는 기대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 활동요약

- 학생들에게 20년 후의 반창회를 연다고 상상하게 한다.
-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성(性)에 대한 기대와 차이를 토론한다.
- 조부모 세대분들을 초대하여 그 분들 시대의 성의 기대에 대해 들어본다.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
- 참가인원 : 30~40명 (10명씩 3~4모둠)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활동당 50분 (단위활동들을 재구성하여 활용 가능)
- 준비사항 : 칠판에 '반창회'를 알리는 두꺼운 글씨, 다과준비
- 준 비 물 : 차, 과자, 녹음기, 좋아하는 음악

활동내용

활동 1 : 이제 우리는 아줌마, 아저씨!

▶ 주요내용 : 각자 자신들의 20년 뒤의 모습을 상상하고 얘기한다.

▶ 소요시간 : 50분

▶ 진행과정

- 전체 인원을 10명 안팎의 작은 모둠으로 나눈다.
-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뒤(중학생의 경우 30년 뒤라고 해도 좋다)로 미래를 향해 여행을 떠난다고 설명한다.
- 학생들은 20년이란 세월이 흘러 모두 30대 후반이라고 상상해야 한다.
- 미래의 우리들이 함께 다시 모여 과거의 그 교실에서 반창회를 연다고 상상하고, 각자 자신들의 20년 뒤의 모습을 상상으로 설정하게 한다.
- 학생들은 20년 후인 그때에 자신들이 입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옷과 머리 모양새,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며 즐겁고 재미있는 분위기를 띄운다.
- 서로의 소개가 끝나면 다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졸업한 이후 자신들이 해 왔던 것들(교육, 가족, 직업, 생활 일반 등)에 대해 한 사람씩 이야기를 한다.

활동 2 : 우리의 미래 모습은 어땠나요?

▶ 주요내용 : 성적 선입관에 관한 사례에 주목하여 성적 편견에 대해 분석해 본다.

▶ 소요시간 : 50분

▶ 진행과정

- 서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다음의 내용들을 평가해 본다.
- 남학생의 기대와 여학생의 기대 차이를 토론한다.

- 남학생들은 자신의 경력, 성공, 흔히 말하는 단정적이고 억지스런 행동,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세계가 거쳐 왔다고 생각되는 정치적, 기술적 변화들을 묘사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가?
- 여자 청소년들은 세상 '밖'의 일보다는 가족과 가정적인 관심, 나이 먹어감에 관해 논의했는가?
-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20년 후의 모습이 일반적인 여성상과 남성상의 모습이 아닐 때 가지게 되는 생각은 어떠한가? 어색하게 느껴지는가?

▪ 성적 선입관에 관한 사례에 주목하여 성적 편견들이 누가 무엇을 했다는 주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주목한다.

☞ 응용활동

▪ 과거로 가 보기

▪ 이 활동 다음에는 시계바늘을 미래로가 아니라 과거로 돌리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조부모 세대의(또는 증조부모 세대의) 사람들 몇 분을 초대해서 그 분들의 시공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어떤 기대를 가졌는가를 들어보자. 그 분들이 말씀한 내용을 공평한 고려 및 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토론해 본다.

도움자료

□ 자료 1. 20년 후의 모습들

예1) 나는 20년 후 좋은 선생님의 모습으로 등장할 것이다.
반창회에서 나의 모습은 아이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학부모들을 욕하고 있을 것이다. 아이는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와 딸 하나이다.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교대에서 공부하고 임용고사를 붙은 후에 계속해서 교사를 해 왔다. 안정적인 직업이라서 아직까지는 만족하고 있다.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2) 나는 집에서 있다. 아이가 셋이고 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밖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훨씬 좋다. 하지만 부모님들 때문에 힘든 일이 많다.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할 것이다.

예3) 나는 사업을 한다. 시작할 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아서 번창하고 있다. 다른 분야로도 도전을 해 볼 생각이다. 사업이 잘 되서 아이들은 조기유학을 보냈고 매번 휴가는 해외로 갔는데 이번에는 유럽을 구경할 생각이다.

Ⅲ. 성차별 교육과 문화

4. 사건현장(차별)을 찾아서
5. 교과서 속의 성차별
6. 쉿! 우리 말 속에 성차별이 숨어 있어요
7. 양성이 평등한 우리 학교 만들기
8. 새로 쓰는 동화, 순데렐라?

4. 사건현장(차별)을 찾아서

개 요

□ 활동목표

- 성에 따라 서로 다른 기대들이 작동하고 있는 사례, 즉 남성 또는 여성,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성적 이유만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대우를 받는 사례들을 찾아본다.
-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의 사례들을 알아본다.

□ 활동요약

- 청소년들에게 차별에 대해 조사하게 한다.
- 성차별에 대한 사례를 알아본다.
-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상황을 차별이 없는 상황으로 재구성한다.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
- 참가인원 : 인원수 제한 없음
- 장 소 : 실내, 생활주변
- 소요시간 : 2시간 내외
- 준비사항 : 교육활동이 실시되는 공간 벽에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상징하는 사진들을 붙여 놓는다. (주방에서의 엄마, 차 심부름하는 여직원, 힘센 노동을 하는 남성 등)
- 준 비 물 : 차별현장 조사기록장, 필기도구

활동내용

활동 1 : 성 차별이 있는 사건현장 조사

▶ 주요내용 : 성차별에 관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그 상황을 재구성한다.

▶ 소요시간 : 2시간 내외

▶ 준 비 물 : 필기도구

▶ 진행과정

▪ 청소년들에게 '차별 기록장'을 나눠 주고, 일주일 동안 조사해 올 것을 요구한다.

<차별기록장>

구분	발생시간	상 황 내 용	이 유
학교 에서			
가정 에서			
시장 에서			
TV 에서			
신문 에서			

▪ 청소년들은 그 기록장에 자신들의 주목을 끌었던 성차별에 관한 사례들을 기록한다.

▪ 조사 범위는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관찰된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는데, 대략 학교, 가정, 시장, TV, 신문 등의 영역으로 나눈다.

▪ 일주일 동안의 조사 기간이 지난 후 다시 모여 작은 모둠으로 나누어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유형별로 묶어 본다.

▪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 중 하나의 영역을 고른 후 그 영역이 성차별이 없는 상황이 되도록 그 상황을 재연한다. 역할극을 꾸미면서 학생들은 다음의 문제들이 대해 고민할 수 있다.

- 조사된 유형들은 왜 인권과 대립하는가?
-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 변화가 정당화되는 상황에서, 변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 역할극을 마친 후, 정리활동으로 진행자와 학생 전체가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알아본다.

도움자료

□ 자료 1. 차별 기록장

구분	발생시간	상 황 내 용	이 유
학교 에서			
가정 에서			
시장 에서			
TV 에서			
신문 에서			

□ 자료 2.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일부개정 2003.5.29 법률 제069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말한다. 이 경우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적용조건이 양성중립적이거나 성별에 관계없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性)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때에도 이를 남녀차별로 본다. 다만,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를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차별의 금지]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당해 직장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피해의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 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성희롱의 사실조사에 협조한자 등에 대해 근무여건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성희롱은 남녀차별로 본다.

[조사 등의 절차]

제21조 (남녀차별 사항의 시정신청 등)

①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자(자연인에 한한다)는 위원회에 이 법에 의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 (남녀차별 사항의 조사)

① 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중대한 남녀차별사항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남녀차별사항을 그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23조 (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계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성부 소속직원 또는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공공기관 또는 사용자에 대해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신청인·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제34조 (고발) 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 자료 3. 남녀차별이 나타난 영역들의 예

예1) TV속에서

▶ 오!필승 봉순영, 유쾌함 속에 일그러진 성역할

KBS2 폭소클럽 이야기를 먼저 하자. 두 꼭지 모두 담배 이야기였다. 한 꼭지는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다뤘는데 경쟁자인 상대방이 '담배 피는 여자'라는 사실을 폭로하며 웃기는 내용이었다.

다른 하나는 남자 친구가 신제품 담배의 맛을 궁금해하자, 여자 친구가 "저거 맛없어" 라고 해 관객이 웃는 내용이다. 이 두 내용은 재미있지만 모두 여자가 담배 피면 안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물론 흡연은 남녀 건강에 모두 나쁘다.

드라마 <오!필승 봉순영>은 왜곡된 남녀 역할을 웃음 속에 그대로 담고 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인 노유정은 삶과 인간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성으로 나온다. 자신의 일과 능력을 가진 여성은 뭔가 부족하다는 차별적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여기에 오필승의 할머니 신회장은 대기업을 이끌어 가는, 차갑고 표정 없는 철혈 여성으로 등장한다.

봉순영은 처음에 아주 활발한 성격을 지낸 여성으로 등장했다.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이 강하고 세계관이 확실했다. 하지만 갈수록 사랑 앞에 흔들리기만 하고 남자 앞에서 멍청해지기만 한다. 흔히 말하는 '여자다움'의 봉순영 판이다. 이제 봉순영의 초기 당당한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오필승은 노유정에게 "사부는 일 안하고 쉴 때는 무엇을 하느냐"고 했다. 예를 들면 검도말고 꽃꽂이나 요리 같은 것 말이다. 그런 말을 듣고 노유정은 집에서 열심히 요리 연습을 한다. 이러한 발언 역시 여자는 검도 같은 것 말고 꽃꽂이와 요리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런 일그러진 성역할의 드러냄은 단지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드라마는 남자에 관한 식상한 표현을 남발하곤 한다.

윤재웅이 봉순영의 집에서 잔 다음날 오필승이 첫 월급을 받고 나서 내복 선

물을 들고 오면서 공교롭게도 오필승과 윤재웅이 같이 아침밥을 먹게 된다. 이때 어머니는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밥을 많이 먹는 게 최고'라고 한다. 그러자 윤재웅은 슬그머니 한 그릇을 더 달라고 한다. 흐뭇해하는 봉순영 어머니의 모습이 확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의미가 없는 식상한 말일 뿐이다.

또 한 장면은 이렇다. 허송자(추자현)가 김밥집 일이 끝나고 힘들어하자, 봉준표(문천식)가 어깨를 두드려 주겠다고 한다. 그러라고 하니 조심스럽게 주무르는 봉준표, 그에게 허송자는 "남자가 팍, 팍 주물러야지 남자가 그렇게 힘이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안마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안마는 힘보다 유연성이 더 유리하다. 즉 이 말도 현실과 관계없는 식상한 말일 뿐이다.

강한 어머니상도 문제다. 대기업의 회장인 할머니는 냉철하기만 하다. 봉순영의 어머니 박옥자는 또 다른 버전인 할머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이라기보다는 서민의 강한 어머니를 상징을 상징한다. 남편 봉창수를 비롯한 식구들을 모두 끌어가는 위치다. 드라마는 그녀의 억척스러움을 전면에 내세운다. 봉순영에게 그 엄마는 "아직까지 너희들을 모두 건사할 만큼 무너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엄마의 고생스러움은 드러내지 않는다.

<오!필승 봉순영>에서 강한 어머니상, 그리고 커리어우먼, 경영자 여성인, 남성에 대한 시각은 남성과 여성의 균형적인 성 역할 인식을 드러내기에는 미흡하다. 한쪽에 대한 열등감이나 피해 의식만을 드러내는 데 여전히 머물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있는 집안의 가족을 다루면서 여성이나 남성을 반쪽 내는 설정은 이제 그만했으면 싶다. 어찌되었든 오필승 어머니를 미혼모로 만든 아버지가 합리화되고 있다.

윤재웅은 부잣집에서 어머니 없이 혼자 컸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성격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할머니 신회장이나 준수 어머니도 혼자로 만들었다. 더구나 그녀들 같이 여성이 혼자 집안 등을 이끌면 감정이 메마르고 이상한 성격을 형성한다는 식의 설정 말이다.

부와 성공에 대한 비판을 가족을 죽여하는 방법은 범람한지 오래다. 하지만 너무 많으면 드라마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 된다. 또한 현실이 정말 그런 줄로만 알겠다.

* 글·김헌식(문화비평가)

예2) 학교현장에서

* 한겨레21 2000년 05월 04일 제306호

▶ 비뚤어진 의식 강요하고 조장하는 학교현장… 의식적인 성섞기가 시급하다

서울 강동구 ㄷ고등학교. 운동장에 남녀 학생들이 나란히 서 있다. 전교생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아침조회시간. 어딘가 어색하다. 장대 같은 남학생들이 앞쪽에, 키작은 여학생들은 되레 뒤쪽에 서 있다. 이런 줄서기는 비단 조회시간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행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진/명확하게 구분된 남학생과 여학생. 꼭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러다보니 여학생들은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남자애들이 키도 큰데 항상 앞에 서요. 뒤에 서면 하나도 안 보여요. 얼마 전엔 방송사의 공개방송이 있었는데, 가수 임창정도 오고, 연예인들이 많이 왔어요. 뒤에서 잘 안 보여 앞으로 가다가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혼났어요." 이 학교 2학년 임아무개(17)양의 말이다. 임양은 특히 이날 한 교사한테서 "여자애들이 어딜 (앞에)나서!"라는 질책을 들었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에서 행사진행을 맡고 있는 체육교사는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줄서는 걸 잘 못하는 데다 통제가 어렵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세우는 게 과연 성차별이냐"고 반문했다. 그저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구분일 뿐이라는 설명이었다.

또 하나의 학교풍경. 경기도 과천의 ㄱ초등학교. 이날의 마지막 수업이 막 끝났다. 청소시간. 선생님이 남녀아이 다섯명씩 10명에게 교실 청소를 맡도록 했다. 그런데 남자애들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졌다. 남은 것은 여자아이들뿐. 당연히 여자아이들은 억울해 할 수 밖에 없었다. 이 학교 5학년 이아무개(12)양은 남자아이들이 도망친 것을 선생님에게 전했

으나 선생님은 "남자애들은 원래 그래, 너희들이 참아라"고 달랬다. 이양은 "왜 선생님은 여자애는 그래선 안 돼, 남자애들이란 원래 그래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양은 여자는 남자애들과 달리 참아야할 게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이양이 화나는 것은 또 있다. 학급 아이들의 출석부 번호매기기 방법이다. 이 학교는 1번부터 가나다 순으로 남자 아이들에게 번호를 먼저 주고, 남자아이들 번호가 끝나고나서 여자아이들 번호가 시작되는 것이다. 과연 초등학교에서 굳이 번호가 필요한지도 의문이지만 남자아이들 뒤에 여자아이들 번호를 매기는 이유도 궁금한 대목이다.
ㄷ고등학교의 조회와 ㄱ초등학교의 번호매기기는 무심하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흔한 학교풍경일지 모른다. 어느 남성교사의 말처럼 "아주 시시콜콜한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돋보기를 들고 그 속내를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이 나라 학교현장에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차별적 남녀 성가르기의 명백한 모습이다. 어릴 적부터 학교 안에서 여성불평등, 여성차별을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3) 신문에서
[고용평등추진본부] 격월간 잡지 『평등』 제1호에서

▶ 성역할분업, 신문에 살아있다

이제 지하철에서 펼쳐보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신문이 무거워졌다. 재벌신문과 신문재벌간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서 증면경쟁, 구독경쟁으로 인한 살인사건 등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되어 신문을 바라보는 눈총이 따갑지만 그렇다고 신문을 접하지 않고 살아가기는 어려운 게 또 우리의 현실이다. 그만큼 우리는 신문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여성 관련 기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고용평등추진본부 신문모니터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5대 중앙일간지에 실린 여성 관련 기사를 분석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중앙일보>가 여성 관련 기사의 양이 가장 많은 데 비해 <조선일보>와 <한국일보>가 여성 관련 기사의 양이 대체로 적었다. 특히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탁아문제 등 여성문제를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기사가 많이 실린 점이 다

른 신문과 비교해 두드러졌다.

여성 관련 기사는 사안에 따라 정치, 경제, 국제, 사회면에 실렸고, 고정코너로는 가정과 교육, Hi Life, 가정-생활(동아), 생활가정(조선), 생활, 여성(중앙), 가정·여성, 생활연출(한겨레), Home Week(한국)가 있었다. 기사의 주제는 신한국당의 성폭력특별법 개정 움직임, 대졸여성취업문제, 미국 대통령선거전에서 후보 부인들의 활약, 성폭력 사건, 여성복지와 탁아정책의 미흡, 정신대문제, 과다노출 단속과 관련한 기사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육아와 가사노동과 관련 기사가 주류를 이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7.9%이고 그중 기혼이 43.1%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관련 기사는 육아와 자녀교육, 집안정리, 요리, 패션, 인테리어, 쇼핑정보, 부업정보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여성역할을 가사노동과 육아의 전담자, 소비자에 그 1차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함께, 변화되고 있는 여성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옛날에는 아이 잘 키우고 집안일만 잘하면 현모양처로 칭찬받았지만, 요즘에는 아이를 똑똑하게 키워야 하는 것은 물론 집안의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써 주부의 안목을 자랑해야 하고 날씬한 몸매에 뛰어난 패션감각으로 세련된 옷차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센터 정도는 다녀 취미와 교양도 쌓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다보니 이와 관련된 기사도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모니터 기간 중 가정교육 및 자녀지도, 개학준비와 관련된 5대 일간지 기사의 사진이나 그림 8개 전부가 아이 옆에는 엄마만이 있었다. 또한 엄마·아빠·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만든 가족도서관에 관한 기사(중앙, 9월 4일)에서도 엄마의 역할만을 강조하고 있었고,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한 이벤트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는 기사의 제목을 "엄마 노릇 대신 해드려요"(중앙, 8월 21일)라고 했다. 이렇듯 자녀양육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부모를 돕는 좋은 책 20선」(한국, 9월 15일)에서는 아버지, 부모, 가족으로 구분함으로써 엄마의 존재를 부모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끝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과 가정 모두 충실해야 1등 부모라는 의식이 높아지고 있듯이, 아빠와 김치담그기 대회, 남성을 위한 요리교실에 관한 기사라든가 육아휴직 사용 1호인 남자교사에 대한 기사 "애키우는 아빠는 즐거워"(한겨레, 9월 9일)는 자녀양육에 있어서 부모역할의 변화를 잘 반영하였다고 보

인다. 또한 <중앙일보>가 매주 연재하는 "새로 쓰는 가정문화"(맞고 자란 아이가 폭력사회 만든다, 이웃사촌 이제 옛말인가, 준비없는 결혼 신혼파경 늘고 있다, 나이들수록 부부 공통 취미 가꿔야)도 문제의식이 돋보인 기사였다.

▶ 남편은 '직장생활', 주부는 '돈벌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각 일간지에서는 신공항건설공단의 조경기사, 정비사, 카세일즈 우먼, 백화점 의류구매담당, 판매여왕, 원예·도예 전문가, 웨딩드레스학원 원장, 식품회사 여사장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었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앞서가는 여성", "파이팅 중년" 등을 연재하고 있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승진 성차별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기사(한계레, 9월 5일) 등 성차별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인터뷰기사와 여성집중직종인 전화교환원의 차등정년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성차별이라고 반발하는 여성계의 입장(조선-8월 28일, 한겨레-8월 29일)을 싣고 있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은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지만 주부는 돈벌이에 뛰어든 것'으로 인식하는 한편, '임용과 승진 때 남녀 차별 없이 능력 위주로 하는 경향이 커졌다'라고 함으로써 성차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동아, 9월 10일, "실세주부 떴다").

<중앙일보>의 "화이팅 중년" 등 일부 기사에서는 가사일을 주로 하면서 취미삼아 한 일이 오늘의 성공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었다. 이는 여성경제활동의 독자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집안일도 잘하면서 취미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된다는 사회적인 통념을 더욱 확대하고 있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원하는 여성들의 의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주업이 아니고 '부업'이라는 인식은 여성의 저임금을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는데, "부산제조업 '아줌마부대'가 지탱"(중앙, 8월 20일)이 대표적인 예이다. 시간때우기라는 사진설명(일을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돈도 벌려는 주부들이 늘면서...)은 여성의 취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고, '주부 노동을 쓰는 것은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이 수준 이상 임금을 주고는 신발 등 부산지역 주요 산업의 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본문은 여성의 저임금을 합리화하고 있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저임금 해소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보

다 충실한 기사가 되었을 것이다.

독자투고 형식으로 연재되는 조선일보의 "부업행진곡" 또한 가사노동과 병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성의 저임금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었다. 50-70만원을 벌기 위해 가사노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전부를 일에 매달려야 하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조선, 8월 25일)

일을 매개로 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을 위한 자질과 노력이 강조되기보다는 사회통념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여성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었다.

"그는 고객을 설득시키거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애교를 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동아, 8월 17일, 앞서가는 여서)"거나 일하는 장소나 업무의 특성은 배제된 채 그저 예쁘게만 보이도록 연출한 사진이 많았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함께 보육시설의 확대가 요구되는 현재, <한겨레신문>에서 [삶의 질 15대 과제]의 하나로 8월 29일과 30일 연재된 '탁아비용 50% 국가지원을'은 질 높은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과 외국 사례 등을 잘 다루고 있었다. 이에 반해 강남주부들이 달동네 보육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부족한 엄마 사랑을 듬뿍 채워주고 있다"(중앙, 8월 16일, "6년을 하루같이 엄마사랑")는 기사는 기혼취업여성의 아이들은 애정이 결핍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취업철을 앞두고 대부분의 신문에서는 대졸여성의 취업이 여전히 어렵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취업문 좁다지만… 대졸여성 갈 곳 많이 늘었다'(중앙, 8월 28일)라는 기사는 단연 두드러졌다. 하지만 '대졸여성 갈 곳 많이 늘었다'라는 전망은 두산그룹과 이랜드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채용규모를 밝히지 않은 채 추측으로만 끝나고 말았다.

▶ 전업주부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지난 8월 14일 신임 김윤덕 정무제2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여성들의 입지가 커져 역기능도 있었으며 과소비와 과도한 교육열을 부채질했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을 산 적이 있었다. 과연 여성은 과소비와 과외열의 주범인가?

5대 일간지의 지면에는 7살난 아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시설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주부,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주부, 가족도서

관을 열어 동네주민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한 주부,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여성 등 여성들의 건강한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특히 9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총 6회 연재된 <동아일보>의 "실세주부 떴다"는 주부들의 변화되는 의식과 생활양식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실세주부 떴다"는 주부 이성교제(아내의 남자친구 탓하지 말라), 불꺼진 주방(시계추 남편 "여자를 귀찮게 하네"), 와이프 퍼스트(자기 가꾸기 아낌이 없다), 부창부수(婦唱夫隨), (이젠 마동남(마누라 동창 남편모임) 못끼면 불출, 엄마는 프로("내아이는 내가…" 자녀교육 두루 꿴다), 아내는 사장님(암탉이 울면 집안이 뜬다) 등을 주제로 하고 있었다.

주부의 이성교제, '주부=밥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의 변화, 전업주부들이 남편과 취업주부에 대해 갖는 열등감, 부계 중심에서 양계(兩系) 중심으로 옮겨가는 생활양식, 여성들의 경제력 확대 등의 문제의식은 좋았으나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 흥미 위주와 시선끌기에 치중한 제목, 일부 여성의 사례를 마치 주부들의 일반적인 흐름인 양 확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알뜰살뜰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부들의 현실을 볼 때 주방을 아예 없애거나 남편이 없을 때 배달시켜 먹거나 아이들만 패스트푸드점에 내보내는 사례, 50-80만원짜리 피부관리 티켓을 사고 보석전에 붐비는 주부, 아내의 대외활동을 따라가는 남편 등은 보편적인 사례가 될 수 없다고 본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기조는 주부의 득세에 의해 '주부만에 의한, 주부만을 위한, 주부만의 가정'이 되어 남편과 아이들은 희생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미시족 바람이 주부들 마음을 뒤흔들더니 최근 들어서는 여성들에게 가정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는 신주부예찬론을 펴는 광고와 「○○○ 뜨거운 가슴에 좌절이란 없다」, 「부엌데기 사랑」 등의 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9월 8일)은 이같은 흐름은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을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최근의 조류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이에 반해 <중앙일보>(9월 4일, "따로세대 겨냥 복고풍 새바람")는 이러한 흐름을 담은 광고가 소비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광고계의 동향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일보>, <조선일보> 등에서는 화제의 저자 코너에 "바람 안피우는 남편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들키는 내 남편이 순진한 거지요"라는 저자 ○○○의 말을 여과없이 전달하고 있었고(조선, 8월 22일), [부엌데기 사랑]의 저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업주부의 성공담에 전업주부들이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하

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집안일에 전념할 수 없는 취업주부들에게 또하나의 굴레를 씌울 우려가 있는 기사였다.

▶ '맹렬여성'이 아니면 신문에 못나오나

신문 사진은 기사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단 한 컷의 사진이 몇줄의 기사보다 오히려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 관련 사진을 분석해 본 결과,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해외토픽의 사진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고 있었는데,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독일신발 패션전 사진은 통굽 부츠에 관한 사진설명이 없다면 수영복 차림의 모델에 관한 사진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동아, 9월 6일).

또한 개인휴대정보 단말기, 자동차(한계레)는 물론 신고배 출하소식에도 배를 생산하기 위해 땀흘린 농부가 아니라 여성의 옆얼굴이 강조되고 있었다(동아). 상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미모의 여성이 미소와 손짓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남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상품의 개발, 판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자신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또한 제9회 한국국제문화관광교류전에 관한 기사에서도 세계 각국 관광인들이 모여 관광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라는 교류전의 목적에 전혀 관계없는 선정적인 차림의 여성 사진이 실려 있었다(중앙, 9월 6일).

여성을 인터뷰한 기사제목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맹렬여성이었다. "맹렬여성들 배낭여행기 잇따라 출간"(중앙, 8월 15일), "미혼 맹렬여성"(중앙, 8월 19일), "백화점 의류구매담당 맹렬여성"(조선, 9월 9일), "중장비 학원도 여장부들 몰려"(동아, 9월 3일)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열심히 일하는 남성에게는 '맹렬남성'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의욕적인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해서 맹렬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 여성문제 체감도, 여기자들이 높다

8월부터 9월에 걸쳐 약 한달간 여성 관련 기사를 분석해본 결과 여성 관련 기사는 '남성은 사회노동,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담자'라는 성별역할분업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의식은 일하는 여성, 전업주부와

관련된 기사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기자 칼럼(중앙), 여기자 노트(동아) 등 여기자들이 쓴 칼럼이 여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방향제시를 해주고 있었다. "여기자 칼럼"에서는 남자는 문제해결의 어법, 여성은 감정공유의 어법을 쓰는 남녀간의 말법의 차이를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자 노트에서는 "내일의 시민을 기르고 오늘의 산업역군을 재충전하며 어제의 용사들을 봉양하는 일을 주부의 경쟁력만으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중략) 지금 우리에게는 '마누라 같은 정부(政府)'가 필요하다", "시대변화에 맞는 새 덕목과 아울러 남편과 아이를 먼저 위하는 전통적 미덕도 여전히 갖춰야 하는 주부들은 고달프다. (중략) 그런데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는 과소비나 치맛바람의 주범인 골치집단처럼 들먹거려지곤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주부의 삶일까"를 되묻고 있었다. 소수집단으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 어려운 언론사의 현실에서도 여기자들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이제 우리의 언론은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기존에 요구되었던 여성상을 탈피하여 취업여성, 전업주부, 기혼, 미혼으로서 각 영역에서 독자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의식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 언론은 독자들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여성 관련 기사에 있어서 자녀교육, 요리, 패션, 인테리어, 쇼핑정보 등 가사노동과 소비자로서만 여성의 역할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여성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 진단, 그리고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여성상이 많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어느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언론사의 구조화된 성차별의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하고, 독자들의 요구와 감시활동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 신문모니터위원회

예4) 여러 일상생활에서

1) 명절, 제사상의 성차별 - "명절, 여자에겐 중노동 남자에겐 쉬는 날
2) 양육상의 성차별 - "아들 하나, 열 딸 안부럽다"
3) 학교, 직장,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여자의 NO는 YES"
4) 도로상의 성차별 - "집에서 애나 보지, 여자가 웬 운전?"
5) 수업내용상의 성차별 - "여자가 공부는 뭐하러 해, 시집만 잘 가면 되지"
6) 커피, 카피, 심부름 - "미스 김, 커피 한잔"

7) 모집과 채용상의 성차별 - "이왕이면 날씬하고 어려야"
8) 선정적 광고 - "벗길수록 잘 팔린다"
9) 생활관습상의 금기와 터부 - "여자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10) 신용상의 성차별 - "남편 보증이 필요해요"
11) 성차별적 민원태도 - "아줌마, 등본 나왔어요

5. 교과서 속의 성차별

개 요

□ 활동목표

- 성차별의 사례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습의 현장인 교과 과정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안다.
- 구체적으로 그 사례들을 분석해 본다.

□ 활동요약

- 성차별의 사례들을 이야기 한다.
- 사례들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
- 참가인원 : 30~40명 내외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총 40분 내외
- 준 비 물 : 각종 교과목 교재 '성차별 찾기 기록표' (모둠 수대로), 필기도구

활동내용

활동 1 : 교과서 속의 성차별 사례 찾기

▶ 주요내용 : 성차별의 사례를 찾아 이야기한다.

▶ 소요시간 : 40분

▶ 진행과정

- 전체 인원을 5-8명의 작은 모둠으로 나눈다.
- 모둠별로 교과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차별의 사례를 교과서나 학생들의 경험 속에서 찾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성차별 찾기 기록표'에 해당 내용들을 기록한다.
- 찾아낸 성차별의 사례들을 보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는 의논하여 기록지에 적는다.
- 전체가 모여 여성차별협약을 근거로 모둠별로 발표한다.

도움자료

□ 자료 1. 성차별 찾기 기록표

구분	성차별의 내용	개선 방향
과학과		
실업과		
체육과		
C·A 활동		

□ 자료 2. 교과과정 안에서 성차별 사례

▶ 과학과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처럼 학생들의 성에 따라 선택하는 과학 과목이 달라지는 일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사례 : 남녀에게 달리 배정되는 과학 교과)

인문계 여학생은 물리와 지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교사 수급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과반의 경우는 남녀 모두 과학과를 생물과 화학으로 제한하고 있다. 인문계 남학생은 2학년에 물리, 3학년에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여학생은 생물과 화학을 공부한다.

▶ 실업과

여학생에게는 가정과 가사를 남학생에게는 기술과 공업 등을 이수토록 해온 실업과의 경우는 오랫동안 성차별적인 교육과정 편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우리의 교육 이념이 실제에 있어서는 남성과 여성에게 각기 다른 이중 구조, 즉 여학생은 현모양처로 대변되는 가정지향적인 여성으로, 남학생은 기술과 기능을 가진 직업인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의

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6차 교육과정에 의해 비로소 남녀 학생이 중학교 단계에서는 모두 기술과 가정을 공동으로 이수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교육적 문제들은 다소 극복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남녀학생에 따라 여학생은 가정과 가사를, 남학생은 기술과 공업 또는 정보산업을 배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자신의 관심과 재능에 맞는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체육과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성 구분 없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활동에 들어가면 남녀학생이 받는 교육내용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는데 여학생은 개인종목 운동 또는 무용과 같이 여성답고 육체적인 활동이 많지 않은 체육활동을 하게 하는 반면, 남학생에게는 단체경기인 구기 종목을 주로 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체경기는 조직의 규칙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원들의 합의에 의해 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조직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등 중요한 교육적 경험을 갖게 하는 기회인데 이를 여학생에게 차단하고 있는 경우이다.

▶ C·A 활동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와 같이 본래의 활동 목적으로 인하여 특정 성(性)의 학생참여를 배제하는 활동뿐 아니라 뜨개질 반에 가고 싶어도 "사내가 무슨 뜨개질반이냐?"라는 핀잔으로 농구반을 선택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

□ 자료 3. 중1 교과서 내용 성차별 심각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돼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차별 의식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의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제7 차 국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 180명중 남성은 122명으로 67.8%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58명으로 32.2%에 그쳤다.

특히 중심인물의 경우 남성은 전체 49명 중 38명으로 77.6%를, 여성은 11명으로 22.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은 또 전문 직업인으로 분류된 45명중 남성이 여성(10명)의 3배이상인 35명으로 집계됐고, 소설 '소나기'의 '소녀'나 설화 '지네장터'의 '순이' 등 대부분의 여성 등장인물은 가족 이나 부모, 남편을 위해 희생하는 인물로 묘사됐다고 지적했다.
등장인물의 성격도 남성은 주체적인 삶의 영위자로서의 특성이 부각된 반면, 여 성은 정서적인 면이 강조됐으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글의 저자중 성별 확인이 된 4 7명중 남성은 35명(74.5%), 여성은 12명(25.5%)으로 집계됐다.
논문은 "교과서 구성상의 이같은 성차별은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잠재적으로 나타 나고 있지만 성에 대한 관심과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성역할 의식을 확립해 나가는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덜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며 남성의 보조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4-06-2706:06]

□ 자료 4.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채택일 1979. 12. 18 / 발효일 1981. 9. 3 / 당사국 수 166 / 대한민국 적용일 1985. 1. 26[1)]

본 협약 당사국은, 국제연합 헌장이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남녀평등권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세계인권선언은 차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존엄과 제반 권리에 있어 평등하게 출생하며 성에 기인한 차별을 포함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인권규약 당사국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향유할 남녀의 평등권을 보

1)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검토한 후 동 협약 제9조와 제16조 제1항 중 (c), (d), (f), (g)에 대하여 유보하면서 동 협약을 비준한다.
유보철회 : 상기 유보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동 협약 제16조 제1항 중 (c), (d), (f)를 1991년 3월15일 유보철회하였고, 동 협약 제9조를 1999년 8월 24일 유보철회하였음.

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 유의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의 후원하에 체결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제 국제협약을 고려하고, 국제연합 및 전문기구에 의해 채택된 남녀권리의 평등을 촉진하는 결의, 선언 및 권고에도 유의하고,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계속 존재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의 존중원칙에 위배되며,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며, 사회와 가정의 번영의 증진을 어렵게 하며, 그들 국가와 인류에 대한 봉사에 있어 여성의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더욱 어렵게 함을 상기하고, 궁핍한 상황 하에서는 식량, 건강, 교육, 훈련 및 취업 기회와 기타의 필요에 있어 여성이 가장 혜택받기 어려운 점을 우려하고, 형평과 정의에 기초를 둔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이 남녀평등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고, 인종격리정책,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인종차별,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침략, 외국의 점령 및 지배와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 등의 제거가 남성과 여성의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강화, 국제긴장의 완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체제에 관계없이 국가간의 상호 협력,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비축소, 특히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핵군축,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정의 평등 및 호혜의 원칙의 확인, 외국의 식민 지배와 외국의 점령 하에 있는 인민의 자결권 및 독립권의 실현 그리고 국가주권 및 영토보전에 대한 존중 등이 사회 진보와 발전을 촉진하며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완전한 평등의 성취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국가의 완전한 발전과 인류의 복지 및 평화를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현재까지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가정의 복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여성의 지대한 공헌, 모성의 사회적 중요성 및 가정과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을 명심하며 또한 출산에 있어서의 여성의 역할이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아동의 양육에는 남성, 여성 및 사회전체가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인식하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의 철폐에 관한 선언에 명시된 제 원칙을 이행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모든 형태 및 양태에 있어서의 차별을 철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면

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제1조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 함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분야에 있어서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남녀 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식, 향유 또는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효과 또는 목적을 가지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제2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규탄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정책을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지체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을 약속한다.

(a) 남녀평등의 원칙이 헌법 또는 기타 적절한 입법에 아직 규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구현하며 법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을 통해 동 원칙의 실제적 실현을 확보할 것

(b)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적절한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를 포함시킬 것

(c)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적 보호를 확립하며 권한 있는 국내 법정과 기타 공공기관을 통하여 여성을 여하한 차별행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확보할 것

(d) 여성에 대한 여하한 차별행위 또는 관행에 따르는 것을 삼가며 공공 당국과 기관이 동 의무와 부합되게 행동하도록 확보할 것

(e) 여하한 개인,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한 여성 차별도 철폐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f)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현행 법률, 규칙, 관습 및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g)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모든 국내형사법 규정을 폐지할 것

제3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 특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발전 및 진보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1.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한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지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이 모성을 보호할 목적으로 본 협약에 수록된 제 조치를 포함한 특별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차별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제5조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 또는 남성과 여성의 고정적 역할에 근거한 편견, 관습 및 기타 모든 관행을 없앨 목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및 문화적 행동양식을 수정할 것

(b) 사회적 기능의 하나로서의 모성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발전에 있어서 남녀의 공동책임에 대한 인식이 가정교육에 포함되도록 확보하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

제6조 당사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 및 매춘에 의한 착취를 금지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부

제7조 당사국은 국가의 정치적 및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다음의 권리를 여성에게 확보하여야 한다.

(a) 모든 선거 및 국민투표에서의 투표권 및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모든 공공기구에의 피선거권

(b) 정부정책의 입안 및 동 정책의 시행에 참여하며 공직에 봉직하여 정부의 모든 직급에서 공공직능을 수행할 권리

(c) 국가의 공적, 정치적 생활과 관련된 비정부기구 및 단체에 참여할 권리

제8조 당사국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또한 아무런 차별 없이 국제적 수준에서 그들 정부를 대표하며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여성이 국적을 취득, 변경 또는 보유함에 있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에 의한 국적의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거나, 처가 무국적으로 되거나 또는 부의 국적이 처에게 강제되지 아니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자녀의 국적에 관하여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 3 부

제10조 당사국은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도시 및 시골의 각종 교육기관에서 취업과 직업 보도, 학문의 혜택 및 학위취득에 있어서의 동등한 조건; 이러한 평등은 취학전 교육, 일반교육, 기술교육, 전문교육 및 고등기술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직업훈련에서 확보되어야 함

(b) 동일한 교과과정, 동일한 시험, 동일 수준의 자격요건을 가진 교수진, 동질의 학교건물 및 장비의 수혜

(c)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녀공학 및 기타 형태의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d) 장학금 기타 연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e) 성인용 및 문맹자용 교과과정을 포함한 계속교육과정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남녀간의 격차를 가능한 한 조속히 감소시키기 위한 교과과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

(f) 여학생 중퇴율의 감소 및 일찍이 학업을 포기한 소녀 및 여성을 위한 교과과정의 마련

(g) 스포츠와 체육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

(h)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 및 조언을 포함하여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교육정보의 수혜

제11조 1. 당사국은 고용 분야에서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로서의 근로의 권리

(b) 동일한 채용기준의 적용을 포함한 동일한 고용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c) 직업과 고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승진, 직장안정 및 역무에 관련된 모든 혜택과 조건을 누릴 권리, 그리고 견습, 고등직업훈련 및 반복훈련을 포함한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받을 권리

(d) 수당을 포함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의 질의 평가에 있어 동등한 처우와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e)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 및 사회보장, 특히 퇴직, 실업, 질병, 병약, 노령 및 기타 노동 무능력의 경우에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f)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및 생식기능의 보호조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안전에 대한 권리

2. 당사국은 결혼 또는 모성을 이유로 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며 여성의 근로에 대한 유효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및 혼인 여부를 근거로 한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

(b) 종전의 직업, 선임순위 또는 사회보장 수당을 상실함이 없이 유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회보장급부를 포함하는 출산휴가제를 도입하는 것

(c) 특히 아동 보육시설망의 확립과 발전의 촉진을 통하여 부모가 직장에서의 책임 및 사회생활에의 참여를 가사의 의무와 병행시키는 데 도움이 될 필요한 사회보장 혜택의 제공을 장려하는 것

(d) 임신 중의 여성에게 유해한 것이 증명된 유형의 작업에는 동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

3. 본 조에 취급된 문제와 관련한 보호적 입법은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개정, 폐

기 또는 연장되어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가족계획에 관련된 것을 포함한 보건 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 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여성에 대해 임신 및 수유기 동안의 적절한 영양 섭취를 확보하고 임신, 해산 및 산후 조리 기간과 관련하여 적절한 역무제공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사국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다른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동일한 권리, 특히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가족급부금에 대한 권리

(b) 은행대부, 저당 및 기타 형태의 금융대부에 대한 권리

(c) 레크리에이션 활동, 체육과 각종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14조 1. 당사국은 시골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문제와 화폐로 표시되지 않는 경제 부문에서의 노동을 포함하여 시골여성이 가족의 경제적 생존을 위하여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하여야 하며, 시골여성에게 본 협약의 제 조항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시골여성이 지역개발에 참여하며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시골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시골여성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a) 모든 수준에서 개발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참여하는 것

(b) 가족계획에 대한 정보, 상담 및 서비스를 포함한 적절한 보건 시설의 혜택을 받는 것

(c) 사회보장 계획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

(d)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능적 문자 해독능력에 관한 것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식, 비공식 훈련 및 교육과, 특히 지역사회교육 및 특별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

(e) 취업 또는 자가경영을 통한 경제적 기회에 있어 평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조집단 및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것

(f) 모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

(g) 농업신용 및 대부, 매매시설, 적절한 공업기술의 혜택을 받으며, 토지 및 농지개혁과 재정착 계획에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

(h) 적절한 생활조건, 특히 주거, 위생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운송 및 통신 등과 관련한 생활조건을 향유하는 것

제 4 부

제15조 1. 당사국은 여성에 대하여 법 앞에서의 남성과의 평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민사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법적 능력 및 동 능력을 행사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당사국은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관리할 동등권을 여성에게 부여하여야 하며 법원과 법정의 절차상 모든 단계에서 여성을 동등히 취급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법적 효과를 가지는 모든 계약과 기타 모든 종류의 사적 문서를 무효로 간주하는 데 동의한다.

4. 당사국은 사람의 이전에 관한 법과 그들의 주거 및 주소 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6조 1. 당사국은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남녀평등의 기초 위에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a)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b)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상호간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혼인을 할 동일한 권리

(c) 혼인 중 및 혼인을 해소할 때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d) 부모의 혼인상태를 불문하고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 부모로서의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녀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e) 자녀의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동일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보, 교육 및 제

수단의 혜택을 받을 동일한 권리

(f) 아동에 대한 보호, 후견, 재산관리 및 자녀입양 또는 국내법제상 존재하는 개념 중에 유사한 제도와 관련하여 동일한 권리와 책임: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g) 가족성(姓) 및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포함하여 부부로서의 동일한 개인적 권리

(h) 무상이든 혹은 유상이든 간에 재산의 소유, 취득, 운영, 관리, 향유 및 처분에 관한 양 배우자의 동일한 권리

2. 아동의 약혼과 혼인은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으며 혼인을 위한 최저 연령을 정하고 공공등기소에 혼인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입법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부

제17조 1. 본 협약의 이행상 행하여진 진전을 심의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협약의 발효시에는 18인, 그리고 35번째 당사국이 비준 또는 가입한 후에는 23인의 본 협약의 규율 분야에서 높은 도덕적 명성과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구성한다. 동 전문가는 당사국에 의해 그들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어 개인 자격으로 봉사하여야 하며, 선출에 있어서는 공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 및 상이한 문명형태가 대표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2.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사국에 의해 지명된 자의 명부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그 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3. 최초선거는 본 협약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후에 행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 3개월 이전에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2개월 이내에 그들의 지명자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이렇게 지명된 전원의 명단을 알파벳 순으로, 그들을 지명한 당사국을 명시하여, 작성하여 당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위원회 구성원의 선거는 사무총장에 의해 소집되어 국제연합본부

에서 열리는 당사국회의에서 행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정족수를 구성하는 동 회의에서 참석 및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획득한 피지명자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된다.

5. 위원회의 구성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그러나 최초선거에서 선출된 구성원 중 9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되며 최초 선거 후 즉시 동 9인 구성원의 명단을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다.
6. 위원회는 추가 구성원 5인의 선거는 35번째 비준 또는 가입 후 본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다. 동 기회에 선출된 추가 구성원 중 위원회 의장이 추첨으로 선정한 2인의 임기는 2년으로 만료된다.
7. 불시의 공석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국의 전문가가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종료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그 국민 중에서 다른 전문가를 임명하여야 한다.
8.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총회가 승인하고 결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9.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에 따른 위원회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및 시설을 제공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그들이 본 협약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택한 입법, 사법, 행정 또는 기타 조치와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전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진다. 즉,

(a) 관계국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이내에 제출하며
(b) 그 이후에는 최소한 매 4년마다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는 언제든지 제출한다.

2. 보고서에는 본 협약상 의무의 이행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애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제19조 1. 위원회는 자체의 의사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자체직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0조 1. 위원회는 본 협약 제18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주를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정규로 회합한다.

2. 위원회 회의는 국제연합 본부 또는 위원회가 정하는 다른 편리한 장소에서 정규로 개최된다.

제21조 1. 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그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하며,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보고서 및 정보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하여 제안 및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동 제안 및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으로부터의 논평이 있는 경우 이와 함께 위원회의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용으로 여성지위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전문기구는 본 협약 규정 중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규정의 시행에 대한 심의에 참가할 권한이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에 그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협약의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 6 부

제23조 본 협약상 어떠한 것도 아래에 포함될 수 있는 남녀평등의 달성에 더욱 이바지하는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당사국의 법령 또는

(b) 동 국에 대하여 발효 중인 여하한 기타 국제협약, 조약 또는 협정

제24조 당사국은 본 협약상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할 목적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제25조 1.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협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4. 본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26조 1. 본 협약의 개정요구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의 방법으로 당사국이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동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하여 취할 조치를 결정한다.

제27조 1. 본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본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본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한 각 국가에 대하여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28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에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2. 본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 회람시켜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접수된 날에 발효한다.

제29조 1.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둘 또는 그 이상 당사국간의 분쟁이 직접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들 중 하나의 요구가 있으면 중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중재재판 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당사국이 중재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동 당사국 중 일방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에 부합하는 요청에 의해 동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동 국이 본 조 제1항에 기속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 타 당사국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전항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3. 본 조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서 언제든지 동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30조 본 협약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서 정당히 권한이 주어진 하기 서명자는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6. 쉿! 우리 말 속에 성차별이 숨어 있어요.

개 요

□ 활동목표

-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들을 나타내는 언어들을 찾아보고, 그 언어가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을 규정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본다.

□ 활동요약

-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언어를 찾아본다.
- 남녀간의 선입관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
- 참가인원 : 30~40명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1시간 내외
- 준 비 물 :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언어 찾기표' (인원수대로), 개인적 특성과 직업이 적힌 카드(인원수대로), 필기도구

활동내용

활동 1 : 언어 속의 성 차이에 관한 선입관 찾기

▶ 주요내용 : 언어 찾기표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성에 관한 선입관을 생각해 본다.

▶ 소요시간 : 30분 내외

▶ 진행과정

-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언어 찾기표'를 한 장씩 나눠 준다.
-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을 개인적 특성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학생들이 제안해 보게 하고 그것들을 빈칸에 써본다.
- 언어 찾기표에 있는 개인적 특성과 직업이 적혀있는 카드를 각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 한 사람씩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소개를 한다. 그리고 카드에 적힌 성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해서 떠오르는 대로 남녀 구분하여 적어놓는다.
- 모둠원 대다수가 어떤 특정위치에 기표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 남자 청소년의 응답과 여자 청소년의 응답을 따로 정리한 후, 남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 예를 들어 '겸손한 마음'을 가진 특성을 가진 사람이 여성의 속성과 대립되는 남성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여 그 사람이 남자라고 하는 응답에서 남자 청소년의 수 대(對) 여자 청소년의 수를 비교해 본다.

활동 2 : 이야기 나누기

▶ 주요내용 : 선입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 소요시간 : 30분 내외

▶ 진행과정

- 만약 어떤 선입관이 나타난다면 다음의 내용을 이야기해 본다.
-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선입관은 어떤 것인가?
- 이런 식으로 특징이 규정될 때 어떠한 느낌을 받는가?
- 그러한 선입관들은 상대방 성을 향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지 않은가?
- 남성 또는 여성이 상대방 성이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그러한 선입관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어,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직활동을 해야 하는가, 국가 경영을 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기초하여 한 명씩의 대표학생들이(남녀 각각 한명씩이면 더 좋다.)나와서 남성적인 여성과 여성적인 남성의 모습을 재연해 본다. 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색함과 이상한 기분에 대해서 각 모둠별로 이야기 나누어본다.
- 위의 체크리스트에서 나타난 특성들에 대한 우리의 선입관들이 우리의 문화 전체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학생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예를 들어, '겸손'은 문화적으로 결정된 요소이다. 또한 겸손은 연령이나 지위에 좌우될 수 있다. '손을 잡는 것'과 같은 행동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들은, 학습된 성 역할 반응의 문화적 차이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도움자료

□ 자료 1.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언어 찾기표

▶ 표시기준

♂ … 남자 아이나 남성이 더 많이 연상된다.
♀ … 여자 아이나 여성이 더 많이 연상된다.
= … 남성, 여성이 똑같이 연상된다.
× … 어느 것도 연상되지 않는다.

개인적 특성들	표시하기	개인적 특성들	표시하기
겸 손	♂ ♀ = ×	지도력	♂ ♀ = ×
오 만	♂ ♀ = ×	경쟁욕구	♂ ♀ = ×
장난기	♂ ♀ = ×	애정욕구	♂ ♀ = ×
모험심	♂ ♀ = ×	세밀함	♂ ♀ = ×
소심함	♂ ♀ = ×	자상함	♂ ♀ = ×
자신감	♂ ♀ = ×	협 력	♂ ♀ = ×
적극적	♂ ♀ = ×	용 맹	♂ ♀ = ×
소극적	♂ ♀ = ×	친 절	♂ ♀ = ×
상 냥	♂ ♀ = ×	산만함	♂ ♀ = ×
책임감	♂ ♀ = ×	아기자기	♂ ♀ = ×
이지적	♂ ♀ = ×	솔선수범	♂ ♀ = ×
수줍음	♂ ♀ = ×	우아함	♂ ♀ = ×
	♂ ♀ = ×		♂ ♀ = ×

□ 자료 2.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뒤엎다.

여자보다 여성답고 힘찬 '점프'…성역할 뒤집은 발레단 '그랑디바' 첫 내한공연
튀튀(발레복)에 포인트슈즈를 신은 가냘픈 발레리나는 저리 가라!
12~15일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에 오르는 '그랑 디바'는 발레에서

남녀의 성 역할을 완전히 뒤집은 발레단. 남성만으로 이뤄진 이 단체는 '백조의 호수'와 같은 고전부터 발란신의 모던 발레에 이르기까지 수십개의 레퍼토리를 '여장남자' 발레리나의 몸을 빌려 공연한다.
멋진 왕자님일 것 같았던 건장한 발레리노들이 튀튀와 포인트슈즈를 입고 화려한 분장을 한 채 춤추는 것이 바로 그랑디바의 매력.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조합을 남성 발레리나들은 '여성보다 여성스럽게, 여성에게는 부족한 파워풀한 동작'으로 소화해낸다. 발레의 엄격한 형식미를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다소 불쾌할 수도 있지만 마린스키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스웨덴 왕립 발레단 등 유수 발레단에서 훈련받은 발레리노들의 우스꽝스런 모습에 관객들은 대부분 배를 잡고 웃는다.
1996년 '발레 엔터테인먼트 쇼'를 표방하며 설립된 이 단체는 뉴욕에서 본거지를 두고 있지만 워낙 일본에서 반응이 좋아 아예 일본에 눌러앉아 있을 정도. 97년 이후 일본에서 매년 60회 이상 공연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가부키 등 공연에서 성 역할을 바꾸는데 익숙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반응은 미지수.
이번 첫 내한공연은 발레의 고전으로 자리잡은 '백조의 호수', 바흐의 음악을 이용한 발란신의 대표작 '바로크로 가자', 밍쿠스의 '돈키호테' 등 고전을 재치있게 패러디한 작품을 보여준다. '백조의 호수'는 서정적인 백조들 대신 실수투성이인 백조들이 떼지어 나오고 '바로크로 가자'에선 비대한 남성 발레리나가 비대칭의 미학(?)을 보여준다.
이번 프로그램중 그랑디바가 대표작으로 꼽는 것은 '빈사의 백조'. 전설적인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의 춤으로 유명한 이 작품은 죽어가는 백조의 모습을 처연하게 묘사하는 것이 백미이지만 그랑디바는 잘 발달된 근육질의 무용수가 관절과 근육을 우스꽝스럽게 뒤트는 안무를 선보인다.
[국민일보 2004-08-03]

□ 자료 3.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특성, 성격에 관한 논의

▶ 질문: 왜.. 여잔.. 삐져도 되고.. 남잔.. 삐지면.. 쪼잔하고..[성차별아닌가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자는 삐지면 달래줘야 하는데 남자가 삐지면 쪼잔하다고 욕먹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삐져도 되고 남잔 삐지면 쪼잔하고 성차별보다는..

▶ 답변①

성차별 보다는 어떤 관념의 차이겠지요...
남자라고 삐지지 말라는 법 없지만..
여자는 삐지면 그래도 귀엽잖아요 애기처럼 투정도 부리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남자는
시원시원 해야 하고 털털하고 한마디로 쿨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혀있었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 왔잖아요
여성은 좀 조신하고 얌전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은 것도 있고 사회의 분위기상
남자와 여자의 성격을 이렇게 한 방법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회에서
살다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 자신 조차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많이 삐지니까 삐져도 별로 이상하지 않지만
남자는 삐지는걸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삐지면 한마디로 "뭐야.."
이런 인상을 남기시는거죠... 제 답변은 여기까지구여...

▶ 답변②

여자는 왠지 삐지면 귀엽잖아요
근데 남자가 삐지면 짜증나잖아여-_-;

여자는 삐지면 애교라고 볼수 있지만
남자가 삐지면 애교라도 이상한데-_-
거의 애교있는 남자는 연상연하커플이 좋아하지 않나요??
여자가 더 나이가 많을 경우

▶ 답변③

그 이유는 남자는 남자답다 이 말이 있기 때문이지요.
남자 답다란, 털털 하고, 뭐든지 해결 할 수 있는... 한마디로 꿍 하는 게 없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통 의식이 깃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별로 성차별이라고는 못 느낍니다.
남자로써 그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 답변④: 성차별이라는 단어를 남발하지 마세요

여자가 호주제 등등 성차별로 불평하면 느그가 군대가라 이런식으로 나오는 대요
그게 어디 남잡니까 ㅡ ㅡ?
성에 대한 배려와 성에 대한 차별을 분명히 하세요
님이 말씀하신건 예로부터 내려오는 남성과 여성의 자태에 관한 내용이죠
남자는 강인하고 마음이 넓고 등등 여자는 여리고 남자말 잘듣고 착하고 등등
뭐이런 고정관념이죠

▶ 답변⑤: 남자는 그러면 안된다는 법도 없잖습니까?

쩝..
요즘은 그래도 여자가 남자처럼 털털하고 남자도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입견을 많은사람들이 갖고있는것 같습니다.
남자는 꼭 이래야만 되고 여자는 꼭 저래야만 된다...
그런거 따지지 말고, 자신의 성격대로 사는게 더 좋을지도

▶ 답변⑥: 성차별 이라긴 보단..

남자가 원래 여자를 감싸 주는 경우가 많잖아여..
근데 그 감싸 주는 역할을 하는 남자가 삐지면..
감싸 안아져 있는 여자는 당근 그 남자를 신뢰 할 수 없죠..
왜냐면 이런 식이면 나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남자의 역할 때문에 그런 소리 먹는거죠..

▶ 답변⑦: 저는요,,,

저는 남자가 삐지는거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정도가 지나치면 짜증이 나기 시작 하겠죠
맨 처음에는 그냥 넘어 간다해도...
무슨 말만 해도 삐지다면 남자건 여자건 짜증나는건 물론입니다
솔직히 남자 애교있게 삐지거나 아니면은 귀엽게나 삐지면 귀엽기라도하죠
제경험담입니다..
어떤 오빠일인데요 빼빼로 안주면 삐지고 친구 만나러 가야하는데
나가면은 삐지고 그리고 못봐서 아는척을 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이것도 장난이라고 계속하면은
상당히 곤란하죠...짜증도 많이 나겠죠
ㅋㅋ 하지만요. 남모두 삐질 권리는 있어요
이렇게만 삐지지 않는다면요 다행이죠
※출처: Naver지식검색 > 지식Q&A> 사회, 문화 > 법률: 성차별

□ 자료 3. 정치이념이 변화시킨 '남성성'

▶ 정치이념이 변화시킨 '남성성'

몸짱' 연예인은 얼핏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과 닮았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남성 이상형이란 대개 그러했다고 지나치려는 순간, 그들의 뽀얀 얼굴이 눈길을 가로챈다. 여성 화장품 모델이 무색할 정도로 투명하다. 근육질 몸매는 털 하나 없이 매끈하다. 현대의 남성 이상형은 '반남반녀'의 양성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동성애적 자극이기도 하다. 남성 이상형이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에 고정됐다는 상식은 그래서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다. 아폴론의 형상은 여러 이념과 결합하며 끊임없이 '변주'됐다. 남자의 이미지는 그 변천에 대한 문명사적 통찰이다. 현대의 남성성이 주조된 18세기 이후가 주된 관심의 시기다.
문명사학자인 지은이가 들여다본 그 시간 동안, '남성다움'의 이상형은 정치적 이념에 의해 변덕스럽게 바뀌었다. 현대의 남성성은 민족주의와 나란히 탄생해 진화했다. 봉건시대의 기사는 '태도(매너)'에 대한 동경이었지만, 근대의 영

웅은 '외양'과 관련된 것이었다. 외모에 대한 관심은 민족적·인종적 차이의 구분을 그 바탕으로 한다. 이 시대에 이르러 힘과 미를 갖춘 남성 이상형은 민족국가와 시민혁명의 표상으로 전면에 등장했다.

가냘픈 육체에 맑은 영혼이 깃든다는 중세의 관념도 이 시기에 이르러 파국을 맞았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란 신화가 시작되면서, 열등한 육체적 특질은 (긍정적 의미의) '스테레오타입'과 비교되는 '카운터타입'으로 낙인찍혔다. 그 단골 악역은 유대인·흑인·집시 등이 떠안았다.

'남자다움'은 전쟁의 시기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확장됐다. 국가는 죽음·희생·규율 등의 관념을 아름다운 신체에 덧댔다. 청년들은 갈고 닦은 자신의 '남성성'을 기꺼이 전쟁의 제단에 바쳤다. 사회주의적 남성상을 통해 이를 전복시키려던 볼셰비키조차도 결국엔 전투적 남성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

현대적 남성성의 극단은 나치즘·파시즘과 잇닿아 있다. 그것은 전우애로 대표되는 의리, 희생과 용맹의 정신, 강인한 체력, 그리고 심신의 조화를 유지할 자제심 등이 각각의 절정에서 결합된 고도의 정치적 모델이었다. 유대인 학살은 극단의 남성성이 '카운터타입'에 행사한 극단의 폭력이었다.

근대적 의미의 남성다움을 구성하는 주요 특질은 2차 대전 이후 분해되고 있다. 여성과 동성애의 확장된 영역이 남성성의 경계를 침식했다. 이념의 호명을 거부하는 청년문화도 남성성을 개별화시켰다. 그러나 지은이는 "근대를 거쳐 현대에 완성된 '남성다움'의 관념은 이미 사회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고 짚는다. 문제는 "남성성의 몰락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까지 변형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한겨레 2004. 11. 06.)

7. 양성이 평등한 우리학교 만들기

개 요

□ 활동목표

-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어느 한쪽의 성이 우대받거나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성이 평등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변화시켜야 할 것들을 학생들 스스로가 찾아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활동요약

- 양성 평등을 위한 규칙문을 제시하고 합당한지 토론하고 수정한다.
- 양성 평등 규칙문을 완성시키고 다짐의식을 갖는다.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
- 참가인원 : 30~40명
- 소요시간 : 1시간 내외
- 장 소 : 실내
- 준 비 물 : 양성 평등을 위한 우리들의 규칙문 (모둠 수대로), A4 용지 (모둠별로 2-3장), 색지, 전지(모둠 수대로), 매직, 색연필 등 필기도구, 작은 선물2개(과자)

활동내용

활동 : 양성이 평등한 우리 반을 소개합니다.

▶ 주요내용 : 양성 평등을 위한 토론을 한다.

▶ 소요시간 : 1시간 내외

▶ 진행과정

- 전체 인원을 5-8명의 작은 모둠으로 나눈다.
- 모둠별로 '양성 평등을 위한 우리들의 규칙문'을 나눠 주고, 모둠원들은 한 항목씩 살펴보며 합당한 내용인지를 토론한다.
- 모두가 공감을 했으면 이대로 받기로 하거나,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을 한다.
- 이에 더하여 추가할 내용을 모둠별로 한 가지씩만 골라 추가 항목으로 작성한다.
- 전체가 모여 모둠별로 선정한 추가 항목을 발표하고, 같은 것은 합하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분류하여 최종 추가 항목을 선정한다.
- 완성된 우리 학급의 규칙문을 전지에 예쁘게 꾸미고 급훈을 정한다.
- 각 모둠의 대표자들과 진행자는 학급심사를 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조원들은 각 규칙문과 교훈 앞에서 한 사람 또는 조원전체가 돌아가면서 왜 이 사항을 벌여고 또 첨가시켰는지에 대해 이유를 말한다.
- 전체 인원과 학급심사원들이 가장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것 같은 모둠을 박수소리로 정하여 작은 선물(과자)를 증정하며, 심사로 나온 각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 각 반의 규칙문을 함께 읽고 앞으로 잘 지켜갈 것을 모두들 앞에서 약속한다.

도움자료

□ 자료 1. 규칙문 내용

○ 우리 반의 급훈이 성차별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양성 평등한 급훈으로 설정한다.

○ 여학생들도 학교 및 학생의 대표가 될 수 있게 하는 데 참여한다.

○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차이로 이해한다.

○ 과학 실험이나 가사실습 또는 기술실습 시 남학생 또는 여학생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다른 성은 보조적인 활동에 머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배려한다.

○ 체육활동에 있어 성차별에 의한 편견을 갖지 않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함께 순번이나 질서를 지키며 사이좋게 운동을 한다.

○ 운동종목을 선택할 때 성별에 따르지 않고 개개인 능력에 따라 선택한다. 그리고 남녀 학생이 협력하여 운동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한다.

○ 교과 선택을 할 때 성별에 따라 선택하지 않는다.

○ 학생회 운영할 때 남학생이 회장이나 반장, 부장 등의 리더십을 갖고, 여학생은 부회장이나 차장 등으로 보조적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게 한다.

○ 학급의 부서나 임무 분담은 남녀로 고정하지 않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개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게 한다.

○ 여성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 [추가 항목] : 내용을 더 추가할 수 있다.

□ 자료 2. [뉴스 9] 양성 평등 교육 확산

⊙앵커: 여학생은 치마교복을 입어야 하고 출석번호도 남학생 뒤에 오도록 한 것이 그 동안 당연시되어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학교마다 이런 성차별적 관행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기자: 남녀공학인 이 중학교의 출석부는 남자가 먼저, 여자는 그 다음인 관행을 깼습니다.

이름에 가나다순으로 출석번호를 정해 여학생이 1번이 됐습니다.

⊙홍○○(서울 석관중 3학년): 남녀차별도 별로 없어진 것 같고 이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자: 이 학교에서는 올 2학기부터 여학생들이 교복으로 바지나 치마를 골라 입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는 생각이 교복에도 투영돼 학생들의 불편은 뒤로 한 채 치마를 강요해 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김○○(평택 청북중 3학년): 치마는 스타킹, 속바지, 치마, 이렇게 아침에 바쁜데 입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추워요, 겨울에.

⊙기자: 체육시간에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응원석만 지키던 여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와 남학생과 함께 축구공을 찹니다.

⊙최○○(중학교 교사): 어른들이 많이 펼쳐져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이렇게 구분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펼쳐줘야 될 것입니다.

⊙기자: 알게 모르게 학교 안에 존재했던 성차별. 양성평등교육으로 그 고정관념의 벽도 깨지고 있습니다.

8. 새로 쓰는 동화, 순데렐라?

개 요

□ 활동목표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 '신데렐라' 의 이야기를 성차별적인 측면에서 제조명해 본다.
-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미리 정해진 성 역할이나 외모에 따른 잘못된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분석해 본다.
-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성차별과 인권차원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어 보며 성역할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배운다.

□ 활동요약

- 신데렐라 줄거리를 보고 내용 분석을 한다.
- 분석한 것을 토대로 새로운 캐릭터를 써 본다.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
- 참가인원 : 30~40명 내외 (모둠 4~5명씩)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50분
- 준 비 물 : 신데렐라 동화책, A4용지, 필기도구

활동내용

활동1 : 동화 읽고 내용 분석해보기

▶ 주요내용 : 동화책이나 줄거리 소개문을 보고 내용을 분석해 본다.

▶ 소요시간 : 1시간 내외

▶ 진행과정

- 전체 인원을 4-5명의 작은 모둠으로 나눈다.
- 성적으로 고유한 유형이 있음을 가장 일찍부터 학습시키는 방법의 하나가 동화인데, 그 대표적인 동화의 예들을 자유롭게 말해본다.
- 모둠별로 신데렐라 동화책이나 줄거리 소개문을 보고 내용을 분석해 본다.
-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악한 사람은 여성(사악한 계모, 못생긴 언니들)들이다. 설령 친절한 요정이 주인공의 행복한 결말을 조성하기를 했지만, 신데렐라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예쁘고 착한 마음씨, 그리고 그로 인해 얻게 된 남성(잘생긴 왕자)의 명령에 의해서이다. 왕자는 신데렐라에게서 자그마한 발을 가진, 아주 잘 차려 입은 예쁜 여성의 존재만을 볼 따름이다.
- 캐릭터별로 성차별이나 인권 문제 등의 시각에서 문제점이 있는 캐릭터를 찾아내고, 어떤 면이 문제점이 있는지를 말해본다.
- 줄거리 내용 면에서 성차별이나 인권 문제 등의 시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아낸다.

활동2 : 동화쓰기

▶ 주요내용 : 성역할의 편견이나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동화를 써본다.

▶ 진행과정

○ 동화쓰기

- 분석 토의한 내용을 정리하여 등장인물별로 새롭게 캐릭터를 정한다.
- 성역할의 편견이나 성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동화를 써본다.
- 전체가 모여 모둠별로 새로운 동화의 내용을 발표한다.
- 각 등장인물별로 원래의 캐릭터의 문제점과 새롭게 제시한 캐릭터를 정리하여 평가해 본다.
- 모든 활동이 끝난 후 1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이 있다면 각자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글을 써보게 한다.
- "신데렐라에게 하고 싶은 말" (원작에 나오는 주인공)
  - 묻고 싶은 말, 충고, 부러운 점, 고칠 점 등을 편지 형식으로 자유롭게 쓰게 한다.

도움자료

□ 자료 1. 동화 「신데렐라」에 대한 이야기

유럽에서 옛날부터 구전되던 대표적인 의붓자식 이야기로, 프랑스의 동화작가 C.페로의 『거위 아주머니 이야기』(1697)에 있는 『상드리용』을 번역한 것이다. 신데렐라(상드리용 : '재를 뒤집어쓰다'라는 뜻)는 항상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일을 한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다. 전처의 딸 신데렐라는 구박을 받으면서 힘든 집안일을 한다.

어느 날 왕자가 무도회를 열자, 계모의 두 딸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간다. 신데렐라도 가고 싶어 울고 있을 때 선녀가 나타나 마술지팡이로 호박으로 마차를, 생쥐로 말을, 큰 쥐로 마부를 만들고 옷도 아름답게 차리게 한 후 12시가 되면 원래의 모습이 된다고 알려 준다. 무도회에서 왕자와 춤을 추다가 12시가 되어 급히 집으로 돌아오다가 한쪽 유리 구두를 잃어버린다. 왕자는 유리구두가 맞는 아가씨를 아내로 삼겠다고 발표한다. 누구에게도 맞지 않던 구두가 신데렐라에게 꼭 맞고, 선녀의 요술로 다시 아름다운 공주의 모습이 되어 왕자와 결혼한다.

□ 자료 2. 동화를 줄인 이야기

옛날 어느 나라에 마음씨 착하고 예쁜 한 소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그만 몹쓸 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소녀는 날마다 슬픔에 잠겨 울며 지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딸을 위하여 계모를 맞이하였습니다. 두 딸을 데리고 온 계모는 소녀의 아버지 앞에서는 소녀를 위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소녀를 못살게 굴고 구박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계모의 두 딸도 지독한 욕심쟁이에다 심술쟁이였습니다.
그러나 소녀의 아버지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장사를 하러 멀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계모와 새언니들은 소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소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청소, 빨래,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부뚜막 청소를

하느라고 몸은 온통 재투성이 일 때가 많았습니다. 계모와 새언니들은 소녀를 '신데렐라'라고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신데렐라에게 더 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여행 중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런 좋은 옷은 입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는 다락방을 쓰도록 해라."

계모는 신데렐라의 옷과 방을 빼앗아 새언니들에게 주었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어두컴컴한 다락방을 쓰게 된 신데렐라는 이제 그 집의 하녀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의 신부감을 뽑기 위해 무도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이 옷 어때? 나 예쁘지?"

"그래, 예쁘다. 아마 틀림없이 왕자님이 우리 딸들에게 반하실 거야."

계모와 새언니들은 무도회에 가기 위해 몸치장을 하기에 바빴지만 신데렐라는 그 모습을 부러워하며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데렐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넌 집에서 청소랑 빨래나 하고 있어."

계모와 새언니들이 무도회로 떠나자 신데렐라는 다락방에 가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요정 할머니가 신데렐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불쌍한 신데렐라, 내가 무도회에 갈 수 있게 해 주마."

요정 할머니는 마법을 걸어서 쥐 네 마리를 말로, 도마뱀 두 마리는 마부로, 커다란 호박은 마차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신데렐라도 유리 구두를 신고 멋진 드레스를 입은 모습으로 변하게 해 주었습니다. 신데렐라가 막 무도회로 떠나려고 할 때 요정 할머니가 급히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중요한 걸 잊었구나. 밤 12시가 되면 마술이 풀리니까 잊지 말고 12시 전에 돌아와야 한다."

신데렐라가 무도회가 열리고 있는 성에 도착하자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신데렐라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왕자도 아름다운 신데렐라의 모습에 이끌려 신데렐라에게 춤을 청하였습니다. 계모와 새언니들조차도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어느 나라에서 온 공주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빨리도 흘렀습니다. 12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 신데렐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앗, 12시다! 서둘러 가지 않으면 큰일이야.'

신데렐라는 왕자의 손을 놓고 도망치듯이 무도회장을 빠져 나왔습니다. 왕자가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뒤로 하고 부리나케 계단을 뛰어내려 오던 중에

그만 유리 구두 한 짝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뒤쫓아 온 왕자는 떨어진 유리 구두를 끌어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가씨야말로 내가 찾던 신부감이다. 꼭 찾아내고야 말겠다."
왕자는 그 구두의 임자를 찾아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유리 구두의 임자를 찾아 나라 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유리 구두가 꼭 맞는 아가씨는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마지막으로 신데렐라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신하들이 신데렐라 집에 들어오니 계모는 호들갑스럽게 야단법석을 떨며 두 딸들에게 유리 구두를 신겨 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딸들의 발은 너무 컸습니다.
"낑낑. 내 구두가 틀림없는데 왜 들어가지 않지?"
"어, 이상하다? 내 발이 불었나?"
신하들은 신데렐라에게도 유리 구두를 신어 보라고 했습니다.
"아니, 저 애의 더러운 발로 유리 구두를 더럽히겠다구요?"
계모가 큰 소리로 불평을 했지만 신데렐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유리 구두 안에 발을 쏘옥 집어넣었습니다.
"아! 꼭 맞는다. 이 분이야말로 왕자님께서 찾던 분이 틀림없다."
신하들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신데렐라도 기뻐하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 자료 3. 약이되는 동화, 독이 되는 동화

남녀의 차이와 역할에 대한 고정관점을 강화하는 많은 동화책에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책이다. 고전, 현대, 동·서양을 불문하고 동화 속 남자들의 세계는 멋지고 강하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미녀를 얻고 싶어 한다. 하지만 한 구석에서 남자의 보조자로 그림자로 머물러 있는 여자들의 꿈은 착하고 자애로운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 그것뿐이다. 저자는 이런 동화책 속에 들어있는 '독'을 하나하나씩 짚어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약'이 될 동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출처: yes24 책 소개

Ⅳ. 양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9. 레디 고! 새로 만드는 CF!

9. 레디 고! 새로 만드는 CF!

개 요

□ 활동목표

- 광고의 콘티 분석을 통해, TV/라디오의 성차별적 요소를 알 수 있다.
- 광고 속의 남, 녀의 역할을 바꾸거나 대체해 봄으로써 성에 대한 선입견이 광고 속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 기존의 콘티를 재구성해 봄으로써, 성차별적 요소를 없앤 광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활동요약

- 모둠별로 나누어 CF를 선택하여 콘티에 대한 토론 및 분석을 통하여 성차별적 요소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찾아본다.
- 새로운 콘티를 재구성해 본다.

□ 진행개요

- 지 도 자 : 전체 진행자 1명, 모둠 진행 스텝 5~6명
- 참가인원 : 30명 내외 (5~8명 기준으로 모둠 나누기))
- 장 소 : 실내
- 소요시간 : 40분
- 준 비 물 : CF를 함께 볼 수 있는 비디오 시설과, 다양한 CF 녹화 테이프, 뒷이야기를 작성할 수 있는 필기도구

□ 유의사항

- 성차별이 단순한 남성, 여성의 대결구조로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 진행자는, 성차별의 극복은 모든 사람을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 대할 때 가능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활동내용

활동 : 우리만의 차별 없는 CF만들기

▶ 주요내용 : 광고 속에 나타난 성 차별적 요소들을 찾아본다.

▶ 소요시간 : 1시간 30분 내외

▶ 진행과정

- 전체 인원을 5~8명의 작은 모둠으로 나눈다.
- 모둠별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CF의 여러 종류들을 나열해 본다.
- 각각의 CF의 콘티들을 장면별로 분석하여 기록한다.

[보기]

- 남자 아이나 여자 아이, 여성이나 남성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그것을 익살스럽게 풍자하는 방식 등을 지적하기
- 성을 상품화하는 광고에서 성을 뒤바꾸어 보기

- 장면별로 성적 선입관이나 성차에 기초한 차별 요소가 있는가를 지적한다.
- 차별 요소로 지적된 장면을 어떻게 대체하는 것이 좋을지 의논한다.
- 새롭게 편성한 CF를 장면별 그림 콘티로 표현하거나 실제로 역할을 맡아 재현해 본다.

도움자료

□ 자료 1. 광고 속에 들어난 성차별 예

1. ○○○ **피자 광고:** 여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피자를 위해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며 피자를 시켜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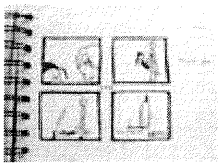
2. ○○○ **광고:** '당신은 이렇게 늦은 밤 누굴 위해 일하나요?' 이 말은 가부장시대에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3. ○○**전자 또 하나의 가족:** 가족의 이미지를 아빠는 신문보고 엄마는 빨래하다가 아빠의 비상금을 찾아내는 너무도 전통적인 생각에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으로 행복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표현했다.

4. ○○○ **주스:** 아침에 바쁘게 아빠와 아이를 챙기고 모두가 나간 후 자신의 주스를 챙겨 마시는 엄마의 모습. 가족이 우선해야 한다는 엄마로서의 여성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5. ○○○ **고추장:** 아빠와 아이는 맛있게 찌게 밥을 먹으면서 밥 한 공기를 더 달라고 하고 맛있다면서 장모님이 다녀가셨냐는 말을 나눈다. 부인은 이 모습을 보며 행복해 하는 모습이다.

□ 자료 2. 광고 콘티의 예



광고대행사에서 만드는 간략한 콘티가 있다. 대략 8개 이내의 박스에다 간단하게 씬을 보여주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순원(2003). "인권교육적 견지에서 본 우리나라 양성평등교육의 성과와 한계", 『교육 부문에서의 양성평등 실태 및 과제』, 2003년도 한국교육사회학회 연차학술대회, 27-42.

교육부(2000). 성교육 세미나 자료집.

김경희(2004). 양성평등과 적극적 조치. 서울: 푸른사상.

김관석(1978). 누구의 인권인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명실(1999). 성차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여성상담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대학원.

김미혜(1997).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미래인력연구센터.

김상원(2001).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개정. 증보. 서울: 교육출판사.

김선욱(2000). 세계화와 한국여성정책. 『동아시아의 근대성/세계화와 여성』. 이화여대 여성연구소.

김성미(1995). 집단경험학습을 통한 청소년 성교육.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김양희 외(2000). 한국여성평화운동에 대한 의식과 발전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2000 연구보고서 250-11.

김엘림(2000). 여성의 인권과 차별문제. 『21세기의 인권 2』. 641-673. 한길사.

김엘림(2001). 여성인권의 보장.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심포지움.

김엘림 · 박현미(1993). 성차별 고용분쟁의 처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인 외(2001). 정책의 성 분석 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김재인 외(2002). 국민의 정부, 여성정책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정연(2003). 한국의 양성평등사회 구현과 여성정책. 『한국과 일본의 양성평등교육』.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세미나.

김한경(200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교육. 서울: 나눔의 집.

노동인권회관(1993). 노동인권보고서. 서울: 역사비평사.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1999). 유해업소 고용 여자청소년을 위한 사법, 복지, 교육대책. 정책자료 99-8.

박선영(2003). 법 여성학. 서울: 법문사.

박숙자(1993). 공무원직에서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박홍규(2004). 아나키즘 이야기. 서울: 이학사.

심미옥(1994). 성역할 사회화에 대한 교육사회학적 고찰. 한국교육 2. 한울. 139-154.

양명수(1999). 녹색윤리 : 인권과 자연권. 서울: 서광사.

유네스코(2000). 모든 인간은…. 서울: 사람생각.

유네스코한국위원회(2001). 과학기술과 인권. 서울: 당대.

윤운영(1997). 언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부산여자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윤성천(1996). 고용강의 성차별과 고평법상의 분쟁처리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이미연(1985). 불완전한 인간을 만드는 성차별 교육. 여성 1,서울: 창작과 비평사. 53-87.

이병천(2001). 20세기 한국의 야만: 평화와 인권의 21세기를 위하여. 서울: 일빛.

이시백 외(2003). 성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부.

이용교(1997). 인권교육의 기법. 서울: 인간과복지.

이춘아(1996).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화여자대학교인간발달연구소(1979). 성교육. 서울: 교육출판사.

장병인(1997).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서울: 일지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국(1999). 양성평등 세상을 열어가는 교육자료 모음집.

정혜숙(1998). 학교내 성차별 실태조사 및 남녀평등 의식 고취 방』,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제갈돈(2000). 국·공립대학교 공무원의 승진에서 성차별. 한국정책과학학회.

조순경(2002). 차이의 신화와 차별의 현실. 인권 2, 한국인권재단(편), 서울: 한길사.

조원정(1996). 성교육. 서울: 현문사.

조정선(2004). 세계화와 여성의 빈곤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최문기 외(2003). 인권과 법. 서울: 세종출판사.

최성철(1996).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편집부(2000). 취학전 아동의 양성평등 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1976). 인간 존엄: 인간의 인권은 침해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언론재단편집부(2003). 미디어 조직과 성차별 여성언론인 주류화방안. 한국언론재단.

한국인권재단(2000). 21세기의 인권 1,2. 서울: 한길사.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2000). 성교육이론과 실제. 서울: 문화마당.

한상진(1998). 현대사회와 인권. 서울: 나남출판.

Acker, S.(1994). *Gendered Education,*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Lernoux, Penny. 민중의 외침: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인권 투쟁: 미국정책과 마찰하는 가톨릭 교회(이부영 옮김, 1984). 서울: 분도출판사.

Pearson, V.(1991). *Women & Power,* Sheffield: Pavic Publications.

Sellars, Kirsten. 인권, 그 위선의 역사(오승훈 옮김, 2003). 서울: 은행나무.

스기하라 야스오(1995). 인권의 역사. 서울: 한울.

스티븐 슈트-민주주의법학연구회 옮김(2000). 현대사상과 인권. 서울: 사람생각.

주디스 워렐, 파멜라 리머- 민예숙, 강김문순 옮김(2004).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울.

짐 아이프-김형식, 여지영 옮김(2001).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강순애 성문화 연구소 www.kslove.com

경북도청여성정부 www.gb.go.kr/index.html

구성애의 아우성 www.9sungae.com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다산인권센터 http://www.rights.or.kr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www.ppfk.or.kr

부산광역시 여성센터 http://www.busanwomen.org

부산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 labor.busanwomen.or.kr

사랑나눔회 www.sun21.org

서울강서양천 여성의전화 http://www.womengo.org

서울 YMCA 청소년쉼터 shelter.ymca.or.kr

양성평등 교육활동 myhome.naver.com/kgisik/human/6.htm

양성평등 성상담 http://equal.chosun.ac.kr

언론인권센터 http://www.presswatch.or.kr

여성노동 가상법정 www.womencourt.or.kr/womencourt

열린복지사무소 www.cp4you.net

유엔인권고등판무관 http://www.unhchr.ch/hchr_un.htm

이영애의성평등정치학 http://user.chollian.net/~artemisa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www.hrights.or.kr

인권운동사랑방 http://www.sarangbang.or.kr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kwunion.or.kr
참119 www.cham119.com
청소년인권센터 http://www.yrights.or.kr
털어놓기 http://my.netian.com/~pmms/
평등 어린이 세상 http://www.moge.go.kr/kids
평등의 전화 사이버 상담실 http://www.equaline.or.kr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ome.ewha.ac.kr/
~sce/programs.htm
학교교육평가 전문인력 양성사업 home.ewha.ac.kr/~ewhabked
한국노총평등센터 www.koreawomen.or.kr
한국성과학연구소 www.sexacademy.org
한국성문화연구소 www.yline.re.kr
한국성폭력위기센터 www.rape119.or.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www.kigepe.or.kr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www.kwwnet.org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labor.womenlink.or.kr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2004년 성희롱, 성폭력 예방 계획
http://www.moe.go.kr/bbs/board.php?bt=data&db=bbs1_2&limit=10&catm
enu=m05_02_06&tn=moebbs&action=view&id=77&page=1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http://cham.jinbo.net/maybbs/view.php?db=sarangbang&code=data&n=230
&page=14
초등학생용 양성평등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보급
http://www.moe.go.kr/bbs/board.php?bt=data&db=bbs1_2&limit=10&catm
enu=m05_02_06&tn=moebbs&action=view&id=71&page=1

중등학교용 양성평등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보급
http://www.moe.go.kr/bbs/board.php?bt=data&db=bbs1_2&limit=10&catmenu=m05_02_06&tn=moebbs&action=view&id=69&page=1
<양성평등> 2002년 교육부지정 양성평등연구학교 운영계획서
http://www.moe.go.kr/bbs/board.php?bt=data&db=bbs1_2&limit=10&catmenu=m05_02_06&tn=moebbs&action=view&id=52&page=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시행에따른업무처리요령
http://www.moe.go.kr/bbs/board.php?bt=data&db=bbs1_2&limit=10&catmenu=m05_02_06&tn=moebbs&action=view&id=19&page=6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프로그램 개발 ◈

박영균 한국청소년개발원 · 연구위원
강순원 한신대학교 · 교수
김영지 한국청소년개발원 · 부연구위원

◈ 연구협력진 ◈

박성희 한국청소년개발원 · 위촉연구원
강윤주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청소년학 전공
전지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

2004-08 청소년대상 차별개선 교육프로그램 개발
2004-08-01 장애인 차별 개선 프로그램
2004-08-02 성차별 개선 프로그램
2004-08-03 연령차별 개선 프로그램
2004-08-04 외국인 차별 개선 프로그램